碩士學位論文

오키나와 '전후' 제로년

『沖縄「戦後」ゼロ年』飜譯論文

濟州大學校 通譯大學院

韓 日 科

安 幸 順

2010年 2月

오키나와 '전후' 제로년

『沖縄「戦後」ゼロ年』飜譯論文

指導敎授 李 禮 安

安 幸 順

이 論文을 通譯飜譯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0年 2月

安幸順의 通譯飜譯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

委 員 _____ ㊞

委 員 _____ ㊞

濟州大學校 通譯大學院

2010年 2月

dCollection @ jeju

역자서문

이 책은 제목만을 보면 오키나와에 한정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거 오키나와 전투를 중심으로 그 이후 60년간의 삶, 그리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전쟁문제에 이르기까지 매우 폭넓게 다루고 있다.

오키나와는 류큐왕국(1429년)에서 일본에 복속(1879년)되었으며, 최근에는 독특한 언어와 문화, 장수촌, 휴양도시로 각광받고 있다. 반면, 대규모 미군기지와 히메유리 학도대, 집단자결 등 이면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태평양전쟁 마지막 격전지로 오키나와 전투의 주민사상자가 10만 명을 넘는다는 이야기는 알고 있었지만, 우리의 역사만으로도 충분히 버거웠으며 그들이 아무리 억울해한들 오키나와 역시 우리들의 영원한 가해자 일본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에 그다지 관심이 가지 않았다. 그런데 지난 2년, 통역·번역현장에서 오키나와의 단편적인 모습을 맞닥뜨리게 되면서 조금씩 궁금해졌고 그러던 중 이 책을 만나게 되었다.

저자인 메도루마 슌(目取間俊)은 오키나와 문제를 다룬 소설로 일본 문단의 각종 상을 수상한 소설가로, 지금은 오키나와 문제를 다루는 활동가이기도 하다. 그의 작품은 오키나와의 역사적 비극을 완미한 형식미 속에서 탁월하게 재현해 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이 책에서 오키나와 문제를 왜 소설로 쓰게 되었으며 자신의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배경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이 책은 원래 1부와 2부로 구성되어 있으나 책 제목에 해당하는 내용은 1부로 종결된다. 2부는 작가의 대담으로 분리되어 있어, 1부만 번역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2부는 생략하였음을 미리 밝혀둔다.

『오키나와 '전후' 제로년』은 가해자의 엄살과 과장이 심할 것이라는 내 선입견과 편견을 보기 좋게 배반한다. 그들은 처음부터 철저히 배제되었고, 오키나와 전투를 통해 확실히 깨닫게 된 차별에 몸부림치며 고난의 역사를 살아왔다. 그리고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전후 60년'이란 세월이 흐른 지금, 그들은 오키나와라는 미군기지에서 살면서 '일상을 지키려고' 끈질기게 싸워나가고 있다. 책 제목 『오키나와 '전후' 제로년』이 말해주듯 그들에게는 전후가 없었다.

dCollection @ jeju

저자는 태평양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주변국에 대한 배려도 잊지 않는다. 특히 조선인들에 대한 당시의 차별은 물론, 최근 한국이나 중국에서 일어나는 반일데모를 보도하는 일본 미디어에 대해 무겁고 괴로운 가해의 역사를 외면하고 자신들이 짓밟고 있는 자들의 비명소리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덧붙여 이러한 행태는 일본의 아시아에서 고립과 더 나아가 미국에 버림받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고 경고하고 있다.

류큐왕국과 탐라국, 후텐마기지 이전문제로 술렁대는 오키나와와 해군기지 건설문제로 양분되는 제주의 모습이 겹친다. 평화의 섬을 지키기 위해 전략적인 기지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기지가 생기면 주민의 평화로운 삶이 깨진다는 상반된 논리를 마주하면서 진정 평화의 섬은 무엇인지 좀 더 고민해야 할 것 같다.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이유를 가르쳐주는 책이다.

마지막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JEJU NATIONAL UNIVERSITY 1952
제주대학교
JEJU 1952
dCollection @ jeju

국문초록

저자는 전후 6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들이 무심코 쓰고 있는 '전후 60년'이라는 말에 의문을 제기한다. 첫째, '전후=2차세계대전 이후'가 아닌 나라들 둘째, 일본의 자위대 파병 및 미군기지에서의 전투기 출격과 주민들의 병참활동 셋째, 헌법 9조를 둘러싼 해석 넷째, 일본 본토와 오키나와의 전후 60년의 차이점이다. 따라서 '전후 60년'의 전후와 전쟁이 끝난 후라는 의미에서의 '전후'와는 구별되어야 함을 전제한다.

1960년생인 저자는 직접 전쟁을 체험한 세대는 아니지만 가족과 이웃에게 들은 살아있는 역사를 공유하고 '전후 제로년'의 오키나와를 구출하려 노력하고 있다. 결국 오키나와 전투는 본토결전을 늦추기 위해 오키나와를 희생양으로 삼았던 하나의 작전에 지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오랫동안 지속된 동화교육은 차별과 협박으로 점철되었으며 오키나와 전투는 그 종착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의 불행한 역사를 본토 일본인들은 얼마나 알고 있는가? 최근의 '오키나와 붐'은 단지 불편한 오키나와의 역사나 현실을 회피하기 위해 이용되고 있을 뿐이다. 오키나와는 일본과 아시아 사이에서 차별과 피차별, 가해와 피해의 이중성을 안고 있는 곳이다. 저자는 그 이중성의 실태를 검증하고 의의를 밝혀서 오키나와만의 전쟁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반성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저자의 소설 쓰기는 대규모 대하소설이나 미화된 영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오키나와 주민들이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죽어갔는가를 끊임없이 이야기한다. 지금도 무자비한 전쟁은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에서 똑같은 발상으로 재현되고 있다. 오키나와 전투의 경험을 통하여 현대의 전쟁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며, 현대의 전쟁을 통하여 오키나와 전투를 어떻게 재해석할 것인지를 묻고 있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기지가 평화를 지켜줄 것이라는 발상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지를 밝힌다. 재정보조와 진흥책의 일환으로 '기지문제'를 '경제문제'로 바꿔치기하며 주민들의 시선을 흐려놓는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흔들리는 오키나와 주민들의 정체성을 염려한다. '류큐처분'에서 오키나와 전투, 시정권 반환을 거쳐 오늘에 이르는 오키나와의 역사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며, 그들이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고 주체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절실하게 고민하면서 맺고 있다.

dCollection @ jeju

목 차

역자서문

국문초록

제 1부 오키나와 전투와 기지 문제를 생각한다

Ⅰ. 들어가며~ '전후 60년'의 전제 ····· 1

Ⅱ. 내게 오키나와 전투는 ····· 6

전쟁체험의 계승 ····· 7

아버지의 전쟁체험 ····· 8

산속 패잔병 생활 ····· 10

일본군병사의 처사와 가족과의 재회 ····· 11

전시 총동원체제 ····· 12

주민을 지키지 않았던 일본군 ····· 14

주민학살을 사죄하지 않는 일본인 ····· 16

동화(同化)=황민화(皇民化)교육 ····· 17

천황에 대한 불쾌감 ····· 18

동화(同化)를 촉구한 오키나와 차별 ····· 19

일본인이 되는 것 ····· 20

증조할머니의 아픔 ····· 22

되풀이된 동화(同化)교육 ····· 23

일본의 가해책임 ····· 25

평화교육의 중요성 ····· 26

어머니의 전쟁체험 ····· 27

오키나와 전투의 주민희생 ····· 30

전쟁과 차별 ····· 31

오키나와 전투와 위안소 ····· 33

dCollection @ jeju

미군병사의 성폭력 ····· 34
말할 수 없었던 전쟁체험 ····· 35

Ⅲ. 오키나와 전투를 소설로 쓰는 의미 ····· 37
전쟁 기억의 공유 ····· 38
천황의 전쟁책임 ····· 40
오키나와전투와 특공작전 ····· 41
'죽음의 미학'이 왜곡하는 것 ····· 43
민중의 체험과 기억을 담는 글쓰기 ····· 44
카메라가 찍지 않았던 오키나와 전투 ····· 45
살해당하는 측의 관점 ····· 47
'서민의 관점'의 중요성 ····· 48
오키나와 전투와 현대 전쟁의 관계 ····· 49

Ⅳ. 기지 문제 ····· 52
기지가 없는 마을 ····· 53
미군훈련의 실태를 보다 ····· 54
일상생활 속의 미군기지 ····· 56
오키나와 내부의 차별과 모순 ····· 57
기지의 희생자 ····· 58
돌려막기 식의 오키나와 기지이전 ····· 60
오키나와 기지의 은폐된 진실 ····· 61
궁지에 몰린 기지 문제 ····· 62
오키나와가 주체적으로 살아가려면 ····· 63

일본어초록

dCollection @ jeju

제 1부 오키나와 전투와 기지 문제를 생각한다

Ⅰ. 들어가며~ '전후 60년'의 전제

'오키나와 전투 위령의 날'인 매년 6월 23일에는 무명전사자가 잠든 '혼백의 탑'을 참배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33회기'를 맞이한 1977년 6월 23일, 이토만시 마부니糸満市摩文仁에서)

dCollection @ jeju

올해(2005년)는 '전후 6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러나 '전후 60년'이라고 말할 때는 전제되어야 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아시아에서 '전후'를 60년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나라가 과연 얼마나 될까 하는 점입니다. 물론 '전후'를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한정한다면 모든 나라가 60년이 되는 셈이지만, '전후=제2차 세계대전'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가 아시아에서 몇이나 될까요? 일본 주변만 둘러보더라도 한국 전쟁이 있었고 베트남 전쟁이 있었습니다. 중국과 베트남, 베트남과 캄보디아 사이에서도 전쟁이 있었고, 중국과 타이완 사이에서도 군사적 긴장상태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에서는 독립전쟁과 군사쿠데타, 민족분쟁이 있었으며 미얀마에서는 아직도 군사독재정권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핵보유국인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쟁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아시아 여러 나라의 상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무심코 '전후 60년'이라고 말하는 그 특이성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둘째, 그러한 특이성을 생각했을 때 일본인으로서 '전후'는 60년이라고 과연 말할 수 있는지 검증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 해 자위대가 이라크 사마와 지역에 파병되었습니다. 미연합 점령군에 자위대가 참가함으로써 일본도 이미 '전시하'에 놓인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전후 60년'이라는 표현은 이미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라크에서는 일본인 다섯 명이 살해되었습니다.[1] 일본정부가 미국의 침략 전쟁을 재빨리 지지하고 자위대를 파병하지 않았더라면 다섯 명의 죽음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미 일본도 이렇게 전쟁으로 인한 희생자를 냈습니다.

게다가 이라크에 자위대가 파병되기 전에는 어땠을까요? 일본은 한국 전쟁이나 베트남 전쟁에도 깊이 관여하였으며 미군의 후방지원기지 혹은 출격거점기지로서 전쟁에 참여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 '국권이 발동되는 전쟁'은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1960년대에서 1970년대에 걸쳐 오키나와에서 B52기가 출동하여 베트남을 폭격하였고, 그 폭격을 오키나와 기지노동자들도 거들었습니다. 병참활동도 전쟁 참가에 해당하는 것은 군사 상식이지요. 그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자위대가 총을 들고 싸우지 않았다고 해서 일본이 참전하지 않았다고 단언할 수 있을까요?

---

1) 본문 집필 중 이라크에서 사이토 아키히코(斎藤昭彦)씨가 살해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미확인 정보가 많아 다섯 명의 숫자에 포함시키지 않았음.

dCollection @ jeju

셋째, '전후 60년'을 마치 헌법 9조가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 전쟁을 모면하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던 60년이었다는 식으로 결론을 내리는 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헌법 9조를 표적으로 삼아 개헌의 움직임이 강화되는 것을 두고, 호헌파는 헌법 9조의 의의 및 중요성을 부각시킬 목적으로 전후 60년을 '평화'로운 시대였다고 강조합니다. 그런가하면 개헌파나 우파에서도 호헌파를 '헤이와 보케'(역주: 平和ボケ, '평화헌법' 아래 오랫동안 전쟁이 없어 위기감이 낮아짐을 빗대는 말, 평화 멍청이)라는 말로 비아냥거리며 공격하기도 합니다. 이 말 자체는 반대로 우파 역시 구 소련과 북한, 중국의 위협을 언급하면서도 내심 '평화로운 일본'을 실감하고 있었던 것을 시사하지 않을까요. 실제로 그들은 미일안보조약 덕분에 '일본이 평화로울 수 있었다'라는 발언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식으로 '평화'로웠던 일본이 전쟁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일본인들이 '평화'를 누리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던 '전후'는 어떠한 희생으로 이루어진 것일까요? 이러한 반성이 대다수의 일본인들에게는 결여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전후부흥'과 한국전쟁의 관계, 또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오키나와를 떼어놓고 시정권(역주: 施政權, 신탁 통치 지역에 대하여 입법·사법·행정 삼권을 행사하는 권한)을 반환한 후에도 미군기지를 오키나와에 집중 배치하여 미일안보체제의 부담을 강요해 온 것 등에 그들은 어느 정도 관심이 있을까요?

'전후' 일본의 경제성장으로 생활수준이 향상되어 대다수의 일본인들은 '평화'를 실감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러한 성장의 그늘 아래서 짓밟히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을 잊어버리거나 혹은 의식적으로 무시한 채 '평화'로운 시대로서의 '전후 60년'을 논한다는 것은 지나친 기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화헌법'과 '미일안보조약'을 공존시켜 주일미군의 주둔으로 국방예산을 억제하고 경제성장을 우선시하는 전후 일본의 체제는 오키나와에 주일 미군기지(전용시설)의 75%를 집중 배치하는 것, 즉 미일안보체제의 부담과 모순을 오키나와에 떠넘김으로써 가능했던 것입니다.

'전후부흥'과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한 일본의 그늘 아래 한국과 북한, 베트남, 오키나와의 희생이 있었던 것을 망각한 채, '평화로운 60년'이라는 말로 넘어갈 수 있을까요?

dCollection @ jeju

네 번째로 생각해야 할 문제는 일본·'본토'·야마토(역주: 大和, 일본 본토에 사는 사람들을 역사적, 정치적, 언어적으로 구분하여 아이누민족, 류큐민족, 니브히족 등 일본에 사는 다른 민족들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의 '전후 60년'과 오키나와의 '전후 60년'의 차이점입니다. 60년이 지난 지금도 오키나와의 20%에 해당하는 광대한 면적을 점거하고 있는 미군기지를 보면 오키나와의 전쟁 혹은 점령은 정말로 끝난 것인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전쟁도 점령도 끝났으며 현재 오키나와에서 전투를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60년 전 수용소에서 고향 마을로 돌아왔을 때 그곳은 미군기지가 되어 있었고, 그 후에도 총검과 불도저로 토지를 빼앗아갔습니다. 그렇게 토지를 뺏긴 상황이 60년이나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군이 일으킨 사건·사고는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 8월 13일에는 기노완(宜野湾)시에 있는 오키나와 국제대학에 미군 대형 헬리콥터가 추락했습니다. 곧바로 미군이 현장을 봉쇄하여 기노완시장이나 대학 학장조차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오키나와 경찰은 조사도 충분히 할 수 없어서 미군이 여전히 치외법권적 특권을 누리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사고 원인도 확실히 밝혀지지 않은 채 사고를 일으킨 것과 같은 기종의 헬기가 후텐마(普天間)기지를 날아올라 이라크로 출격했습니다. 오키나와 미군기지에서는 5,200명의 해병대원이 이라크로 파병되어 파르쟈 공격의 주력으로서 이라크 민중을 살육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와 현실을 감안할 때, 오키나와 전투는 끝났어도 오키나와는 60년간 계속해서 미국이 일으킨 전쟁의 소용돌이에 있었으며 실질적으로 점령되어 있던 것은 아닐런지요. 미군병사에게 성폭행당한 뒤 살해된 유미코[2]나 미군 트레일러에 깔려 죽은 고쿠바[3]와 같은 죽음은 형태를 달리한 '전쟁의 희생자'가

---

2) 1955년 9월 3일, 이시카와(石川)시에 사는 나가야마 유미코(6세) 어린이가 미군병사에게 폭행, 살해되어 가데나(嘉手納) 해안에서 사체로 발견된 사건. 가해자는 가데나 기지 제22 고사포대대소속 H중사(31세). 격렬한 항의운동이 전개되어 미군 당국은 '엄벌에 처한다'고 발표. 그해 12월 6일에 범인에게 사형을 선고했지만 그 후 본국으로 송환되어 결국 흐지부지되었다. ~『오키나와 대백과사전』(오키나와타임스사) 참조

3) 1963년 2월 28일 오후 4시를 넘어 나하(那覇)시의 이즈미자키교(泉崎橋)앞 1호선(현 국도 58호)에서 발생한 중학생 사고사. 우에노야마(上山)중학교 1학년 고쿠바 히데오(国場秀夫)가 파란 신호를 확인하고 횡단하였으나 제3해병사단 소속의 미군병사(20세)가 운전하는 대형 트럭이 신호를 무시하고 돌진, 사망. 그해 5월 1일에 열린 군법회의에서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재판은 방청을 허용하지 않았고 '등 뒤에서 비추는 태양의 반사로 표식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발표되었을 뿐 판결문조차 명시되지 않았다. ~『오키나와 대백과사전』(오키나와타임스사) 참조

dCollection @ jeju

아닐런지요. 일본·'본토'·야마토의 '전후 60년'과 오키나와의 '전후 60년'은 매우 심하게 단절되었으며, 오키나와에 있어서 전쟁이 끝난 이후라는 의미에서의 '전후'는 진정으로 있었던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상과 같은 전제하에 '전후 60년'을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문제제기도 없이 '전후 60년'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게 되면 고민해야 할 많은 일들이 망각되고 누락되어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JEJU NATIONAL UNIVERSITY 1952
JEJU 1952
제주대학교

dCollection @ jeju

제 1부 오키나와 전투와 기지 문제를 생각한다

Ⅱ. 내게 오키나와 전투는

선조가 잠든 귀갑묘(龜甲墓)에 숨어 있다가 미군병사에게 사살당한 주민들
(1945년 5월, 미군 촬영)

미군의 포로가 되어 공포와 긴장에 싸인 게루마(慶留間島)섬 주민들
(1945년 3월, 미군 촬영)

dCollection @ jeju

전쟁체험의 계승

'전후 60년'을 생각할 때 그 원점인 오키나와 전투를 전쟁체험을 하지 않은 세대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계승해 나갈 것인가가 내게 커다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오키나와 전투에 관한 자료와 증언집을 읽고 체험자의 증언을 직접 듣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는 동시에 우리 가족의 전쟁체험을 추체험(追體驗)하면서 오키나와 전투를 소중하게 여기고 싶습니다.

60년이라는 시간의 길이는 30년을 1세대로 생각한다면 2세대에 해당합니다. 이라크에 자위대가 파병되어 이미 '전시하(戰時下)'가 되었다고도 합니다. 더군다나 전쟁체험자가 연로해지면서 하나 둘 세상을 뜨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볼 때, 체험자의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고 체험자와 함께 '전후'를 회고해 볼 수 있는 마지막 '전후 60년'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도 지금 오키나와 전투와 아시아 태평양 전쟁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1960년생으로 부모님으로부터 전쟁체험을 들을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전후세대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올해 일흔 다섯입니다. 1930년 9월에 태어나 15년 전쟁(역주: 만주사변(1931)~태평양전쟁(1945))이 한창일 때 유소년기를 보냈습니다. 어머니는 1934년 7월생으로 오키나와 전투 당시 열 살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분 모두 전쟁을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키나와 전투를 기억하고 있는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마지막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세대가 전쟁체험을 다음 세대로 계승하는 데 있어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오키나와 전투의 전체적인 개요를 서술하고자 합니다. 오키나와 전투 연구자인 아니야 마사아키(安仁屋政昭)씨는 오키나와 전투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 '일본의 패전은 필연적인 것'이라는 인식하에서 싸워야만 했던 오키나와 전투는 미국과 일본의 마지막 지상전이었다. 오키나와 주민에게는 전후사의 '고뇌와 굴욕의 원점'이 되었다. 10만여 명의 오키나와 수비군의 임무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출혈소모전으로 미군의 '본토침공'을 막아 지구전을 마지막까지

dCollection @ jeju

견뎌내는 것이었다. 절체절명의 당면과제인 천황제 유지(國體護持)를 위해서는 본토결전(本土決戰) 준비 및 종전 교섭시간을 벌어야만 했다.

오키나와 수비군은 오키나와현에 '군민공생공사(軍民共生共死)의 일체화'를 지시하고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일지라도 전력화해야 할 것'이라며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전쟁에 동원했다.

("오키나와 전투 신문", 『류큐신보』, 2005. 4. 1)

좁은 섬 안에서 주민들이 도망칠 수 있는 곳은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구전'으로 전투를 오래 끌게 되면 주민의 희생이 커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오키나와 전투 당시 류큐제도(琉球諸島) 주민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십수만 명의 오키나와인의 죽음[4]은 '국체호지(國體護持)'가 목적인 '본토결전(本土決戰)'의 시간을 벌기 위한 전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렇게 '희생양'이 된 오키나와에서 아버지도 예외 없이 전쟁에 동원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전쟁체험

아버지는 1930년 9월생이므로 오키나와 전투 당시 열네 살이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중학입시에 합격하여 현립 제삼중학교(第3中學校, 현재의 나고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오키나와 전투가 임박해지자 제삼중학교 학생들도 철혈근황대(역주: 鐵血勤皇隊, 일본군 최초 14세~17세의 학도대)의 일원으로 전쟁에 동원되었습니다. 아버지도 그 중 한 명으로 총을 들게 되었습니다. 열네 살이었지만 또래보다 몸집이 작았으며 키도 140cm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38식 보병총조차 제대로 들 수 없어 나무 가장귀나 토담에 올려놓고 쏘았다고 합니다.

당시 오키나와 본섬 북부에는 우도(宇土)부대(독립혼성 제44여단 제2보병대)가 배치되어 있었고, 삼중의 학도대는 우도부대 산하에 소속되어 모토부 반도(本部半島) 중앙에 있는 야에산(八重岳, 야에다케), 옷바산(乙羽岳, 옷바다케) 등지의 산악지대에서 전투에 참가했습니다. 참전하기 전에 학생들은 부모의 승낙을 받기 위해 한 번 귀가했다고 합니다.

4) 오키나와 전투의 전사자 수에 대해서는 우에하라 마사토시(上原正稔) 저 『오키나와 전투 탑 시크릿』(오키나와타임스사) 제6장 제19화 「사망자 수를 부풀린 것은 누구인가」를 참고로 했다.

dCollection @ jeju

다음은 할머니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유품으로 머리카락과 손톱을 잘라 할머니에게 드리자 할머니는 “네가 가든 안 가든 달라질 것은 없단다. 가지 말고 집에 남거라”라며 말렸습니다. 이 말에 아버지는 “어머니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일본이 전쟁에서 지는 것입니다”라고 화를 내며 집을 나갔다고 합니다.

삼중의 철혈근황대원은 주로 통신보조와 전령, 식사 및 탄약 운반 등을 담당했으며 공격부대에 들어가 죽은 학생도 있었습니다. 미군이 상륙하기 직전에는 해안부에 숨어서 상륙하는 미군에 대한 자폭특공전술의 일환으로 몸에 폭탄을 지닌 채로 대기하고 있었다고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내일은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룻밤을 지새웠을 때의 기분은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 때는 다행히 미군이 다른 지점으로 상륙하는 바람에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 후 다시 산속에서 전투가 이어졌는데, 어렵게 산 위로 대포를 운반하고도 단 한 발도 발사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행여 서툴게 발사하여 적에게 주둔지가 발각되기라도 하면 수십 발의 함포공격을 받게 되기 때문이지요.

어느 날, 일본군 병사 몇 명과 척탄통으로 미군을 공격하고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탄약이 다 떨어져서 아버지가 탄약을 가지러 갔다가 돌아오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남겨진 척탄통에는 총탄이 관통한 구멍이 있어서 미군의 습격을 받고 모두 도망쳤다고 생각하고는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는데, 가까이에서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 돌아보았답니다. 야에야마(八重山) 출신의 우에하라 상등병이 땅위에 엎드려서 손짓하고 있었고 아버지는 곧바로 그에게 달려가 그 뒤에 엎드렸습니다.

다시 미군의 사격이 시작되었고 머리 위로 탄환이 휙휙 정신없이 날아다녔습니다. 우에하라 상등병은 총으로 응전하고 있었는데 동태를 살피려고 그랬는지 머리를 든 순간 ‘탕’ 하는 총성과 함께 그의 머리와 총이 바닥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아버지는 뒤에서 바지를 잡아당기며 ‘우에하라 상등병, 우에하라 상등병!’ 하고 불러 보았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총이 머리를 관통하여 즉사한 것을 안 아버지는 그대로 그곳에 있다가는 자신도 총에 맞아 죽게 될 것 같은 생각에 근처에 있던 벼랑 암벽 뒤로 정신없이 달려갔습니다. 집중 공격으로 총탄이 빗발치듯 쏟아졌으나 운이 좋아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dCollection @ jeju

산속 패잔병 생활

그 후 우도부대로부터 해산명령이 내려졌고, 철혈근황대 대원과 함께 도피생활이 시작됩니다. 아버지는 산에서 내려오다가 1기 위의 기세(喜瀨) 선배를 만났습니다. 그는 "한 명이라도 적을 죽이지 않고서는 억울해서 죽을 수가 없다. 다른 부대에 합류하겠다"라며 다시 산으로 올라갔는데 그것이 선배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이어서 일행은 나고(名護)에 있는 다뉴산(多野岳, 다뉴다케, 다노다케)으로 향하게 되는데, 야부(屋部)에서 가쓰야마(勝山)의 산속, 가부소가(我部祖河), 이사가와(伊差川)를 지나 미군이 공격하는 틈새를 뚫고 꼬박 3일 걸려 목적지인 다뉴산에 도착합니다. 아버지는 목적지로 가는 도중에 민간인과 병사들의 시체를 많이 보았다고 합니다. 오키나와 전투는 남부 지역의 전투가 대단히 치열했던 반면, 북부 지역은 전투가 빨리 종결되어 피해도 적었던 것처럼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북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패잔병이 된 우도부대 병사들이 약탈과 폭행을 일삼고 주민학살을 자행한 전쟁의 실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뉴산 입구에 다다르자 가슴에 훈장을 달고 긴 검을 든 장교 세 명이 서 있다가 아버지 일행에게 별사탕과 통조림을 건네주고 안전한 길을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마웠다고 합니다.

다뉴산에서는 피난처였던 집주인이 "저렇게 어린 아이까지 전쟁에 동원되었다니"하고 측은해하며 먹을 것을 나눠 주는 일도 있었지만, 매일 마을에 내려와 감자나 야채를 캐어 먹으며 굶주림을 이겨냈다고 합니다. 얼마동안 그러한 생활이 이어지다가 산속에서 일행을 놓쳐 혼자가 된 아버지는 다시 다섯 명의 일본군 병사를 만나 함께 살게 됩니다.

일본군 병사들은 누구든지 미군에게 발각되면 끝장이지만 그나마 몸집이 작은 사람이라면 안전할 것이라면서 아버지를 마을로 내려 보내 민가를 돌며 먹을 것을 구해오도록 했습니다. 어느 민가에서 사정을 말하고 먹을 것을 얻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 집 아주머니가 군복을 입고 있으면 몸집이 작아도 미군에게 살해된다며 자기 아들이 입던 헌옷으로 갈아입혀 주었습니다. 또 모자는 아주머니가 맡아 둘 테니 꼭 찾으러 오라고 했지만 아버지는 돌아갈 수 없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밤, 아버지와 일본군 병사들은 뗏목을 만들어 헤노코(辺野古)에서 본토로 도망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뗏목이 물에 잠겨 실패하고 하는 수 없이 다시

dCollection @ jeju

산속으로 돌아가 예전 생활을 계속하게 됩니다. 식량조달도 가까운 마을만으로는 힘들어지자 아버지는 어른들과 섞여 나고까지 가서 미군의 쓰레기장에서 통조림 등을 뒤져 산으로 나르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일본군 병사의 처사와 가족과의 재회

어느 날 쓰레기장에서 아버지는 담배를 발견합니다. 혹시나 할아버지께서 살아계시다면 드리고 싶은 마음에 일본군 병사들에게는 숨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발각되어 그들은 자고 있던 아버지를 두들겨 깨워서는 왜 숨겼는지 심하게 추궁합니다. 아버지는 아무리 해명해도 용서받지 못했고 너무나 억울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한 일을 당하고도 아버지는 일본군 병사를 위해 매일 먹을 것을 찾아내어 부지런히 가져다 바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잠결에 일본군 병사들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아버지 때문에 자신들이 있는 곳이 미군에게 발각될지도 모른다고 의심하여 아버지를 제거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그렇게 받아먹으면서도 썩어빠진 일본군 병사들은 아버지를 그 정도로밖에 여기지 않고 있었습니다. 한 병사가 "그럴 순 없다"라고 반대를 한 덕분에 아버지는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나고의 모교에 있던 쓰레기장에서 먹을 것을 찾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우연히 같은 마을의 다미나토(田港)라는 분을 만났는데, 아버지의 가족이 생존해 있으며 "매일 너를 찾고 있다"라고 하셨답니다. 아버지는 산에 있는 일본군 병사들이 걱정되기는 했지만 그 길로 나키진촌(今歸仁村) 고에치(越地)에 있는 부모님을 찾아 알로카시아 잎을 우산대신 받쳐 들고 폭우 속을 달려갔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살던 나키진촌의 나카소네(仲宗根)는 공습피해가 심해 아버지가 살던 집도 불에 타 버렸고 고에치에 있는 할머니 집으로 갔더니 문 앞에 서 있는 아버지를 가장 먼저 고모가 알아봤다고 합니다. 몇 달째 목욕을 하지 못해 온몸이 이로 들끓고 머리는 어깨까지 내려오고 비쩍 마른 아버지를 고모는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할머니가 달려와 울며 부둥켜안았고, 아버지는 이렇게 가족과 재회했습니다.

dCollection @ jeju

아버지의 전쟁체험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가끔씩 듣곤 했습니다. 몇 년 전 어느 늦은 밤에 3시간에 걸쳐 아버지가 제게 전쟁체험을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했던 것도 그 중의 일부입니다. 아버지는 루게릭병을 앓고 있었으며 병세가 계속 악화되어 점점 말하는 것이 힘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자신의 전쟁체험을 아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들은 이야기를 덧붙이겠습니다.

산속을 이동할 때 산양을 몰고 가는 노인과 우연히 마주쳤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총을 들이대고 그 산양을 약탈했습니다. 노인은 "이 산양이 없으면 가족이 굶어죽게 된다. 제발 부탁이니 돌려주라"라며 무릎을 꿇고 사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산양을 빼앗았으며 "만일 그 때, 그 노인이 산양을 내놓지 않았더라면 자신은 틀림없이 노인을 쏘아 죽였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의 풍습을 생각한다면 연장자에 대한 소년의 그러한 태도는 당연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열네 살 소년을 그렇게까지 바꾸어 놓았습니다. 노인의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 역시 무기를 든 '패잔병'의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전시 총동원체제

이러한 아버지의 체험만을 보더라도 오키나와 전투의 특징이나 문제가 속속들이 드러납니다.

예를 들면 겨우 열네 살밖에 되지 않은 소년에게도 총을 들려 전쟁터로 내몰았던 점입니다. 아버지와 같은 철혈근황대원 이외에도 방위대나 호향대(역주: 護鄕隊, 대본영 직할의 유격을 임무로 하는 비밀부대)라고 하여 남자라면 소년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두 전쟁터로 끌려갔습니다. 부족한 병력을 보충하기 위해 끌려간 오키나와 주민들은 일본군 병사들에게도 총이 모자라는 상황이어서 죽창이나 수류탄을 손에 쥐고 적지로 돌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총에 맞거나 함포사격에 나가떨어지고 화염방사기에 타 죽어갔습니다.

1938년에 '국가 총동원법'이 제정됩니다. 이 법에 의거하여 1939년에는 '국민징용령'이 각의결정으로 공포·시행되고 '제국신민을 징용'하여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총동원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체제가 구축되어 갑니다. 당시의 정부 및

dCollection @ jeju

군부는 오키나와 전투에서 그러한 법률을 적용하거나 법률에서 일탈하면서까지 주민을 전쟁으로 몰아넣었던 것입니다.

오타 마사히데(太田昌秀) 전 오키나와현 지사는 『오키나와 전투가 말하는 그 실태/유사(有事)법제는 무섭다』(류큐신문사)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 그런데 군대소집은 보통 빨간색 소집영장 발급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빨간 종이'라 부르고 있었지만, 오키나와에서는 자주 '하얀 종이 소집'이 눈에 띄었다. 군인 외의 방위대 및 그 밖의 소집영장은 이 '하얀 종이 소집'이라는 명칭 그대로 하얀색 종이에 등사판 인쇄된 작은 종잇조각으로 만들어져, 대개 마을 사무소에서 각 가정으로 배부하였다. 그것은 주소와 이름, 소집일시, 집합장소 등이 펜글씨로 기입되어 있는 단순한 것이었다. 게다가 오키나와 전투가 한창인 전쟁터에서는 각 군대가 소집영장도 없이 마음대로 민간의 방공호나 피난처를 돌아다니며 남자면 무조건 징용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28쪽)
>
> 오키나와에서는 국민등록령과 마찬가지로 법에 상관없이 실제로 병역에 동원된 것은 보통 12세~70세의 남성과 12세~45세의 여성이었으나, 사실상 연령에는 거의 관계없이 닥치는 대로 동원되어 전쟁터에 투입되었다. (31쪽)

오키나와에서는 히메유리학도대(역주: 학도병으로 오키나와 전투에 동원됐다 숨진 130여 명의 여고생)가 영화화되어 유명하나 그 여고생들 외에도 수많은 학생과 주민이 전쟁에 동원되어 죽어갔습니다. 히메유리학도대나 철혈근황대 학도병의 죽음을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미담(殉國美談)'으로 미화하려는 움직임은 전후 일본에서 일관되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전쟁체험을 보면 그러한 '미담'은 거짓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군국소년인 아버지가 품었던 천황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는 마음도 실제로 전투에 참가하여 필사적으로 연명했던 날들과 더불어 무너져버립니다.

아버지는 살아남을 수 있었으나 삼중의 학도대에서만 42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오키나와 전체에서는 2천 수백 명의 학생이 동원되어 남학생 873명, 여학생 188명, 합계 1,061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오키나와전투 신문", 『류큐신보』, 2005. 2. 10) 학도병만이 아닙니다. 방위대와 호향대, 일반시민도 마지막에는 오키나와의 남단에 몰려 미군의 일방적인 공격으로 살해되었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dCollection @ jeju

근대 이후의 일본에서 외국과의 지상전 체험은 오키나와나 이오섬(硫黄島) 등 얼마 되지 않습니다. 도쿄 대공습을 비롯한 전국 여러 도시의 공습과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원자폭탄 투하 등 그 자체가 중요한 문제인 전쟁의 참극은 있었습니다. 만주나 남양(南洋)의 식민지에서 지상전을 체험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혼슈(本州)나 홋카이도(北海道), 시코쿠(四國), 규슈(九州)에서 지상전을 체험하지 못한 것, 당시의 상황으로 말한다면 '본토결전'을 체험하지 못한 것이 일본인들에게 전쟁 및 자국 군대에 대한 인식이 안이하도록 만든 것 같습니다. 오키나와 전투라는 지상전에서 오키나와 사람들은 자신들을 지켜 줄 것이라고 믿고 있던 우군(일본군)의 실태를 직접 보게 됩니다. 그것이 '본토'와 오키나와의 커다란 차이점입니다.

주민을 지키지 않았던 일본군

미군은 3월 26일, 게라마(慶良間)제도에 상륙합니다. 도카시키섬(渡嘉敷島), 자마미섬(座間味島), 게루마섬(慶留間島), 야카비섬(屋嘉比島)에서는 일본군의 강요와 유도로 주민 '집단자결'[5] 사건이 일어납니다. 주민들이 미군의 포로가 되어 군사기밀을 누설할 것을 두려워한 일본군은 포로가 되는 것에 대한 공포심을 주민들에게 조장하여 포로가 되느니 차라리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지시합니다. 미군이 상륙하는 것을 알고 패닉상태에 빠진 주민들은 일본군에게서 받은 수류탄과 낫, 괭이 등의 농기구와 밧줄, 돌 등을 사용하거나 또는 맨손으로 육친끼리 서로 죽이는 '집단자결'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400명 이상의 주민이 희생되었습니다. 오키나와전투를 시작할 때부터 일본군은 주민을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었던 것입니다.

4월 1일, 미군은 오키나와 중부 서해안에 무혈 상륙합니다. 이후 미군은 오키나와를 남북으로 분단하여 슈리(首里)의 일본군사령부를 향해 진격해 나갑니다. 패배를 거듭하여 막바지에 몰린 일본군은 주민들을 방공호에서 쫓아내어 함포

5) '집단자결'이라는 표현에 있어서 '자결'은 구 일본군 병사의 자살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어린아이를 포함한 주민들의 강제집단사(集團死)를 표현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있다. 이시하라 마사이에·오오시로 마사야스·호사카 히로시·마쓰나가 가쓰토시 저『쟁점·오키나와전의 기억』(사회평론사) 제1부 제2장「교과서 속의 오키나와전」(이시하라 마사이에) 참조. 여기에서는 살아남은 사람들이 사용한 말로 '집단자결'이란 용어를 사용했다.

dCollection @ jeju

사격현장으로 내몰고 먹을 것을 강탈하며 스파이 혐의를 씌워 각지에서 주민들을 살해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오키나와전의 실상을 본다면 막상 지상전이 벌어졌을 때 군대가 국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오키나와 전투에서 주민을 지키려고 노력한 군인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만 그들은 당시의 일본군 중에서 극히 소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우군'이라고 부르며 신뢰한 일본군은 집과 먹을 것을 제공하고 진지구축을 도와가며 협력한 오키나와 사람들을 정작 전쟁이 시작되자 지켜주기는커녕 참호에서 쫓아내고 학살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본군의 실태였던 것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과 조부모님에게 들은 이야기에서도 "미군 병사보다 일본군 병사가 무서웠다"라는 말과 낮에는 산에 숨어 있다가 밤이 되면 마을로 내려오는 '패잔병'이라는 말이 아이들을 불안하게 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가 태어난 나키진촌에서는 주민 세 명 이상이 일본군 병사에게 살해되었습니다. 그 중 한 사람인 쟈하나(謝花)씨가 일본군 병사에게 찔려 죽은 후, 당시 경방단장(역주: 警防団長-경찰 및 소방의 보조조직)이었던 할아버지도 표적이 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집에서 도망쳐 나와 산속에 숨어 난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오키나와 전투의 기록과 증언집을 보면 일본군의 주민학살 사례가 얼마든지 나옵니다. 당시 일본군은 오키나와 주민을 전쟁터에 몰아넣는 한편, 방언을 사용한 자는 스파이로 간주하면서 처음부터 오키나와인을 신용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주민에게 진지구축을 돕게 하는 것은 군사기밀을 주민들이 알게 되는 것이기도 했지요. 그 때문에 '살아서 포로의 치욕을 당하지 말 것'이라는 '전진훈(역주: 戰陣訓, 1941년 1월 일본 육군장관 도조 히데키가 제정한 군인수칙)'을 주민에게도 강요하고, 동시에 미군에 대한 공포심을 부추겨 만일의 경우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수류탄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본래 지켜주어야 할 주민들에게 군인과 마찬가지로 '자결'을 강요하였고, 그것이 오키나와 각지에서 주민들의 집단적인 강제사(强制死)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한편 마을 안에서도 촌장이나 구장, 경방단장, 교장 등 군에 협력했던 지도자일수록 군과 접촉이 많았고 군사기밀에도 노출되었기 때문에 스파이 혐의가 가해져 목숨을 위협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장의 혼란 속에서 우연히 일본군 진지를 지나가거나 일본군의 지시를 거역하거나 공통어로 제대로 대답하지 못한

dCollection @ jeju

주민들이 스파이 혐의로 죽어갔습니다.

주민학살을 사죄하지 않는 일본인

주민학살의 배경에는 오키나와인에 대한 차별감정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납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본토결전'이 일어났더라면 틀림없이 오키나와의 경우와 같은 일들이 일본 각지에서 일어났을 것입니다. 또한 일본군의 실태를 직접 목격했더라면 모든 일본인들의 군대에 대한 인식도 근본적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매일 먹을 것을 가져다 바쳤던 아버지마저 스파이로 의심하여 죽이려고 했던 일본군 병사들을 생각하면 아무리 궁지에 몰려있었다고는 해도 섬뜩하고 추악할 따름입니다. 아버지는 지금의 소학교 4학년 정도 체격의 어린아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목욕을 하고 할머니가 산양스프를 만들어 주었을 때 아버지는 산에 남아있을 일본군 병사들을 걱정했을 정도로 순수한 소년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던 탓도 있어서인지 제복을 입은 자위대원만 보면 사상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하기 전에 생리적 혐오감이 치밀어 올라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오키나와 주민을 학살한 일본군 병사들입니다. 전쟁이 끝난 이후, 자신의 행동을 사죄하고 학살에 이르게 된 경위나 이유에 대해 자기검증을 실시한 일본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학살과 약탈을 자행했던 병사들 중에는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사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수기와 기록이 여러 권 됩니다. 그런데 오키나와 주민학살에 대해서는 왜 사죄하고 반성하고 검증하는 병사가 없는 것일까요? 그것은 단지 자기의 보신만을 위한 것일까요? 사죄하기는커녕 구메섬(久米島)에서 나칸다카리 메이유(仲村渠明勇)씨 일가와 다니카와 노보루(谷川昇)씨 일가를 학살한 가야마 하지메(鹿山元) 수비대장처럼 돌변한 예도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오키나와에 대한 일본인의 뿌리 깊은 차별감정입니다. 오키나와의 주민학살을 반성하지 않는 일본군 생존자들은 전후에 자위대를 만들게 됩니다.

아버지만 해도 일단 총을 들자 노인에게서 산양을 강탈했습니다. 학도대에서도 아버지는 어린 편이었으나 상급생 중에는 주민들로부터 난폭하게 먹을 것을 빼앗던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무기를 손에 들면 평범한 마을의 소년들도 그렇게

dCollection @ jeju

바뀝니다. 게다가 군대의 무서움도 있습니다. 지금 헌법을 바꾸자는 움직임이 강해져 9조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으나, 일본인의 군대에 대한 의식은 정말로 안이하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군대가 나를 지켜준다는 환상은 제게는 추호도 없습니다.

동화(同化)=황민화(皇民化)교육

아버지의 체험을 통하여 나타나는 또 하나의 문제는 교육문제입니다. 아시아태평양전쟁을 15년 전쟁(역주: 1931년 만주사변~1945년 패전)이라고도 하는데, 아버지는 바로 그러한 15년 속에서 자라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순수하게 군국주의 교육을 받은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머니가 집에 남으라고 말렸을 때도 반발하여 참전했습니다. 천황폐하를 위해 죽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믿고 명예로운 일로 여기도록 철저하게 주입식 교육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오키나와는 본래 천황제, 천황가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섬이었습니다. 1879년에 '류큐처분(역주: 琉球處分, 메이지정부가 1879년에 군대를 보내 류큐번을 폐지하여 오키나와현을 설치)'으로 일본에 합병될 때까지는 사쓰마(역주: 薩摩, 지금의 가고시마현)에 예속되어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청나라와도 조공·책봉의 관계에 있었고 형태상으로는 류큐왕국이라는 이름으로 독립되어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독자적인 역사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류큐처분'으로 일본의 식민지로 편입되고, 이후 류큐의 '토착민'을 '일본인'으로 바꾸기 위한 '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들의 독자적인 언어와 문화, 생활습관, 신체적 특징은 야만적인 것이며 미개한 것이라고 하여 부정하고 일본에 동화하도록 권유합니다. 각 마을의 신앙의 터전이며 무당이나 신녀(神女)가 제사를 지내는 성지인 숲에는 토리이(역주: 鳥居, 신사입구의 문)가 세워져 국가신도(역주: 國家神道, 메이지 시대에서 태평양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일본정부의 황국사관적 정책에 의해 성립되었던 국가종교였다. 국체신도, 신사신도라고도 함)의 이름으로 통합되어 갑니다.

그 과정을 자세하게 살펴볼 여유는 없지만, 합병에 저항하는 왕정의 사족(역주: 士族, 문벌이 좋은 집안이나 그 자손, 또는 선비의 집안이나 그 자손)은 힘으로 억압하여 회유하고 중앙정부에 순종하는 새로운 지배층으로 변화시키는 동시에 민중에게는 동화교육(황민화교육)을 추진하여 오키나와인을 천황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dCollection @ jeju

신민으로 바꾸어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결사적으로 일본인이 되려고 해도 오키나와인은 어차피 '2등 국민'으로 차별받고 있었습니다. 오키나와인은 그러한 차별에서 벗어나기 위해 보다 훌륭한 일본인이 되려고 노력하였으며, 전쟁에 동원된 학도병은 목숨을 바쳤습니다. 아버지도 그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천황에 대한 불쾌감

어머니에게서 들은 얘기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교육은 인간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 아이들에게는 올바른 평화교육을 하여 영원히 전쟁이 없는 나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답니다. 할머니에게 반발하여 집을 나갔을 때와 몇 달 후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전쟁과 천황에 대한 생각은 크게 달라졌던 것이지요. 세월이 흘러 스스로의 전쟁체험을 돌아보고 자신이 받은 교육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었기에 아이들만큼은 자신과 같은 체험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했던 것이겠지요.

천황에 대하여 아버지가 불쾌감을 나타낸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와 함께 TV를 보고 있었는데, 천황생일의 화면이 나오고 쇼와천왕이 축하객들에게 방탄유리 안쪽에서 '축하해 줘서 고맙다'라고 했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해!" 갑작스런 아버지의 목소리에 깜짝 놀라 쳐다보자 아버지는 "저치들은 국민에게 절대로 '고맙습니다'라고 하지 않지"라고 신경질적으로 말했습니다.

천황이 사용하는 일본어에 경어는 없습니다. 경어체계의 정점에 있기 때문에 국민을 향해 '고맙다'라고는 해도 '고맙습니다'라고는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더더욱 아버지는 불쾌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던 것입니다.

전쟁 중, 자신들은 진심으로 천황을 위해 죽으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동시에 만일 일본이 전쟁에 지는 일이 생긴다면 천황은 물론 군 지도자들도 자결할 것으로 믿고 있었다고 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쇼와천왕도 군 지도자들 대부분도 자결하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자신은 천황을 위해 목숨을 바쳐 싸웠고 천황을 위해 싸우다 목숨을 잃은 동료들도 있는데 그들은 살아남았던 것입니다. 천황은 누구를 위해 살아남았을까요? 자신을 위해 죽어간 국민과 자신을 살려 준 국민에게 천황은 경의를 가지고 '고맙습니다'라고 왜 말할 수 없을까요?

dCollection @ jeju

아버지는 그러한 분노와 원통함을 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동화(同化)를 촉구한 오키나와 차별

조금 이야기를 벗어나지만 오키나와 사람들이 어떻게 일본에 동화되어 갔는지를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키나와의 역사와 문화, 습관, 언어, 신체적 특징 등을 부끄럽게 여기고 부정하여 적극적으로 일본인이 되려고 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을 생각할 때 오키나와 사람들이 받은 차별과 그에 대한 공포를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제 할머니와 증조할머니의 체험을 바탕으로 살펴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오키나와 전투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할머니는 1907년에 나키진촌의 나카오시(仲尾次)에서 태어났습니다. 10대 중반에 가나가와현에 있는 방적공장으로 일하러 갔다가 다시 오키나와로 돌아온 후 6개월쯤 지나 관동대지진이 있었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1922~1923년쯤인 것 같습니다. 할머니는 그때 오키나와에 대한 일본인들의 차별에 직면합니다.

마을 식당 곳곳에 '류큐인, 조선인 출입금지' 종이가 붙여져 있었으며, 오키나와 출신 여공이 다른 현의 여공과 싸움이라도 벌어지면 '더러운 오키나와, 돼지도살자'라는 욕을 들었다고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오키나와에는 돼지를 키우는 집이 많았고 돼지고기를 많이 먹는 식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리켜 '돼지 도살자'라고 심한 욕을 해댈 때는 부락차별과 더불어 오키나와인을 무시하려는 처사였겠지요.

할머니는 매우 기가 센 사람인지라 그런 말을 직접 들어도 반박했을 것입니다. 말이 나온 김에 할머니의 강한 기질과 당시의 시대상황을 볼 수 있는 에피소드를 한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방적공장에서 일하기 위해 오키나와에서 야마토로 간 여공들에게 가장 먼저 도쿄견학을 시켜주었다고 합니다. 황거 견학을 갔을 때였습니다. 할머니는 여기가 천황폐하가 있는 곳이구나 하고 감격하여 문 앞에 서 있던 위병에게 가서 "잠깐이면 되니 천황폐하를 뵙게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했습니다. 당연히 위병은 거부했지만 할머니는 아무 대답도 없이 얼굴 앞에 대고 손을 옆으로 흔드는 태도를 보고 '이 녀석은 내가 오키나와에서 왔다고 무시하는 거로구나'라고 생각

dCollection @ jeju

했습니다. 화가 난 할머니는 마침 소변이 마려웠었는데 화풀이로 황거 앞 정원수에 실례를 하려고 했습니다. 함께 있던 여공들이 놀라서 "언니, 들키면 큰일 나요"라며 말렸지만 "아니, 난 여기서 할 거야"라고 우겨 실제로 거기서 볼일을 봤다고 합니다.

다이쇼시대(역주: 大正時代, 1912~1926년), 황거 앞 정원에서 엉덩이를 걷어올려 소변을 보고 있는 오키나와 소녀의 모습을 상상하면 참으로 유쾌해집니다. 할머니 같은 분은 아무래도 예외였겠지요. 할머니의 언니인 '우시'라는 분은 방적공장에 일하러 갔는데 그곳에서 정신이상이 생겼고 오키나와에 돌아와서도 증조부의 폭력에 시달려 정신을 놓게 되어 불행하게 돌아가셨습니다.

본토에 일하러 가서 차별에 직면하고 공포와 불안 속에서 위축되어버리는 우치난츄(역주: 오키나와 사람들이라는 오키나와 방언)가 일반적이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외지에서 업신여김과 경멸의 눈총을 받고, 때로는 노골적으로 비웃음당합니다. 또는 호기심어린 시선으로 관찰과 연구의 대상이 됩니다. 반항하면 위협하고 협박하고 탄압합니다. 순종하면 칭찬하고 대가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수십 년에 걸쳐 반복됨으로써 일본에 합병된 이후의 오키나와인들에게는 차별에 대한 공포심이 각인됩니다. 그래서 차별에서 벗어나 보려고 몸부림치며 본연의 '류큐적인 것'을 부정하고 훌륭한 일본인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온 것이었습니다.

얼핏 오키나와인의 자발적인 현상인 듯 보이는 동화의 이면에는 그와 같은 차별과 협박, 즉 강제적인 구조가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차별이 가져오는 폭력과 그에 대한 공포를 무기로 동화교육(황민화교육)은 추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본인이 되는 것

할머니에게는 돈벌이 갔던 방적공장 이야기와 함께 관동대지진 얘기도 들었습니다. 관동대지진 때 할머니가 일하고 있던 공장에서도 여공들이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공장 식당은 출입구가 좁았기 때문에 점심시간에 식당에 있던 여공들은 신속하게 빠져나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할머니는 6개월 전에 오키나와로 돌아와 있었던 덕분에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때 조선인으로 오인되어 죽을 뻔했던 오키나와 사람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dCollection @ jeju

이것은 아마도 방적공장 등 외지에서 돈벌이를 하고 돌아온 사람들을 통해서 퍼졌을 것입니다. 오키나와에서는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표준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는 오키나와인을 조선인으로 착각하여 죽을 위기에 처했으나 다행히 아는 사람이 있어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들립니다.[6] 그 이야기의 이면에는 조선인으로 오인받아 살해된 오키나와인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표준어를 쓰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공포'와 '교훈'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 죽어간 조선인들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보다 조선인들처럼 살해되지 않기 위해 빨리 '표준어'를 익혀 일본인이 되자는 강박관념이 앞섰을 것입니다.

1903년, 인류관(人類館)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사카에서 개최된 제5회 내국권업박람회(內國勸業博覽會)장 입구에 '학술인류관'이라는 건물이 세워져 류큐인이 구경거리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당시 류큐신보는 아이누(역주: 일본의 홋카이도와 러시아의 사할린, 쿠릴 열도 등지에 분포하는 소수민족)나 조선인, 대만의 '생번(역주: 대만의 고사족 가운데 대륙 문화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야생적인 생활을 하는 번족)'과 류큐인을 동급으로 취급하고 구경거리로 만드는 것에 대해 항의했습니다. 당시의 류큐신보 기사를 읽어보면 폐번치현(역주: 廢藩置縣, 번을 폐지하고 부와 현으로 바꾸는 행정개혁)으로 오키나와현이 되고 '일시동인(역주: 一視同仁, 모든 사람을 차별없이 평등하게 사랑함)'의 천황의 은혜를 받아서 일본인이 된 것을 강조하는 한편, 아이누나 조선인에 대한 야마토의 차별의식을 내면화하여 스스로도 차별하는 편에서는 사고가 이미 생겨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일본과의 동화를 지향하는 종착점이 오키나와 전투에서 비겁하지 않게 싸우고 천황을 위해 목숨을 바침으로써 일본인으로서의 긍지를 보여주자는 의식입니다. 아버지처럼 15년 전쟁 중에 태어나고 자라 군국주의 교육으로 순수배양된 세대는 그러한 의식의 선구자로서 천황을 위해 죽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오키나와의 동화주의 교육과 군국주의 교육은 떼어놓을 수 없는 하나의 체제로서 이를 담당했던 행정책임자와 교사들이 동화주의를 비판하는 것은 전쟁의 책임을 추궁하는 문제와 중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 히가 슌쵸(比嘉春潮) 저『오키나와의 세월』(중공신서)에는 관동대지진에서 만난 오키나와인의 증언이 있다.

dCollection @ jeju

증조할머니의 아픔

1960년대 후반 오키나와에서는 아라카와 아키라(新川明), 가와미쓰 신이치(川満信一), 오카모토 게이토쿠(岡本恵徳)씨 등의 저널리스트나 시인, 학자들의 오키나와인 동화주의 비판운동이 일어나 '반복귀론(反復歸論)'이 전개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소수파 운동에 그쳐, 동화주의 문제는 지금도 오키나와인에게 커다란 문제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키나와에 대한 차별도 오키나와에 집중되는 군사기지 하나만 보더라도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965, 66년 무렵, 내가 도쿄할머니라고 부르던 증조할머니가 오키나와에 돌아와서 반년 정도 함께 살았습니다. 할머니 형제는 돈벌이하러 간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의 쓰르미구(鶴見區)에 살다가 전후에는 증조모도 그 곳으로 옮겨갔던 것입니다. 그때는 사정이 있어서 오키나와에 돌아와 있었는데, 형과 함께 증조할머니 등에 올라타서 놀았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미 여든이 넘었을 테니 정말로 건장한 노인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도 102세까지 사신 매우 건강한 분이었습니다.

증조할머니의 손등에는 멋있는 '파지치(針突)'가 있었습니다. 이전 오키나와에서는 성인여성이 손등이나 손가락에 문신을 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이것을 '파지치' 또는 '하지치'라 했습니다. 메이지시대에 그 습관은 폐지되어 제 할머니 손에는 없습니다.

오키나와에 돌아왔을 당시 증조할머니의 손등에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가나가와현에서 함께 살고 있던 증손자가 할머니의 손이 더럽다고 하여 가죽을 벗기려고 철사로 찔렀던 상처였습니다. 증손자는 아마도 "네 할머니 손, 문신이 있어서 징그러워"라고 반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했겠지요. 증손자가 손등 가죽을 벗기려고까지 했던 체험은 증조할머니에게 참으로 괴로운 일이었겠지요. 그러한 일도 있고 해서 잠시 오키나와에 돌아와 있었던 것입니다.

오키나와의 일본 동화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아픔과 고통, 괴로움의 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증조할머니의 손등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상처를 오키나와인은 육체에도 마음속에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아픔, 고통,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일본에 동화되어 간 것이 아니라 동화당해 갔던 것입니다.

전후에도 '본토'에서 생활하는 오키나와인이 차별을 두려워하여 출신지를 속이고

dCollection @ jeju

성을 바꾸거나 오키나와의 풍속과 습관을 스스로 부정했던 예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것은 증조할머니와 같이 고통을 경험한 일이 있어서이며 언어와 습관에 대해 조롱당하고 상처받은 경험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1960년대, 70년대에 들어서도 계속되었습니다. 본토에 갔다가 노이로제에 걸려 돌아오는 일은 결코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지금도 그러한 야마토와 우치나의 관계는 과연 얼마나 극복되었을까요.

'오키나와 붐'을 타고 산신(역주: 三線, 뱀가죽으로 만든 삼현 악기)을 연주하거나 전통춤인 에이사(역주: 음력 7월 15일에 조상에게 제사를 지낸 뒤 한데 모여 산신, 큰북 등의 악기 반주에 맞춰 에이사라는 노래를 부르며 추는 춤)를 추는 야마톤츄(역주: 본토 일본인들이라는 오키나와 방언)가 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오키나와인이 경험한 차별과 동화의 역사를 아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그들은 차별을 극복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모르는 것이지요. 이처럼 오키나와를 매우 좋아하는 야마톤츄는 자기 마음에 드는 '오키나와'만을 즐기고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은 무시하고 넘어가지요. 지금의 '오키나와 붐'은 야마톤츄들에게 있어 불편한 오키나와의 역사나 현실을 회피하기 위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무지(無知)의 공포를 자각하지 않은 채 '만나면 형제'라는 오키나와 민요의 한 구절을 부르며 다가오는 야마톤츄들이 그다지 유쾌하지만은 않습니다.

되풀이된 동화(同化)교육

다시 교육문제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버지들에게 일본으로의 동화교육을 철저하게 주입한 오키나와 교사들은 전후 얼마나 자신들의 교육을 반성했을까요. 제자를 전장으로 보내어 죽게 한 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은 당연히 있었겠지요. 전후, 오키나와의 교사들이 평화교육에 열심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히메유리학도대와 시라우메학도대 등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학생들 중 교사가 된 그들과 그녀들은 아주 특별한 마음으로 평화의 소중함을 학생들에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인정하더라도 전쟁이 일어난 원인이나 천황제의 문제, 전쟁책임 문제를 이론적으로 밝혀내고 추구하는 노력은 미약했습니다. 오키나와 전투의 비참함을 호소하고 전쟁에 휩쓸리게 된 피해자로서 전쟁체험을 이야기하는 일은 있어도, 오키나와인이 어떻게 전쟁에 협력했고 타이완이나 남양군도 침략에 가담

dCollection @ jeju

했었는가 하는 가해의 문제에 대한 자각은 불충분했습니다. 오키나와 내부에서 주민을 전쟁터로 내몰았던 지도자들에게 전쟁책임을 묻는 일도 거의 없었고, 그 결과 천황제나 동화를 지향하는 것도 그대로 남겨졌습니다.

오키나와에서는 전쟁 전의 지도자들 대부분이 전쟁책임을 지는 일 없이 전후에도 지도자로 활약합니다. 본토의 경우 충분하지는 않지만 전쟁책임을 지고 전범으로서 재판을 받거나 공직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키나와에서는 그러한 과정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채 미군점령하에서 전후가 시작됩니다. 오키나와에 있던 현민 중 4분의 1이 전사하여 결국은 살아남은 이들이 전쟁 후의 부흥을 짊어져야 했기 때문에 전쟁책임을 추궁할 상황이 아니었다는 견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파는 전후 오키나와의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육면에서는 '조국복귀'운동이 활발해지면서 '국기게양'이나 '엄격한 표준어 사용'이 학교현장에서 운동의 형태로 추진되어 자신들의 언어와 생활습관, 문화를 비하하고 '조국 일본'에 동화되는 교육이 다시 실시되었습니다.

1972년 5월 15일, 오키나와의 '시정권 반환'이 이루어졌는데 그 때 나는 소학교 6학년이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운동회에서 작은 히노마루(일장기)를 손에 들고 전교생이 무용을 했고, 방언을 사용하면 공부를 할 수 없게 되므로 표준어를 사용하라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미군의 지배하에 있었으므로 일장기는 저항의 상징이었으며 표준어를 쓰지 못하면 본토에 가서 적응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이었다는 등 당시의 교사들 대부분은 지금도 자기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소학생이었던 내가 생각하기에도 그것은 당치도 않은 말입니다.

교사들은 내가 부모님, 조부모님과 매일 집에서 쓰는 언어를 부정하고 생활양식을 깔보며 오키나와는 안 된다는 열등감을 교육이라는 이름하에 주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오키나와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 덕택입니다. 당시에는 집에서도 표준어를 사용하자는 이야기가 학교와 지역에서 있었다고 하는데, '왜 우리들 언어를 사용하면 안 되는가?'라는 반발에서 아버지는 의식적으로 집에서 방언을 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동급생들도 남학생들은 선생님이 없는 곳에서는 방언을 썼습니다. 그러나 여학생들은 선생님의 영향을 받기 쉬운 탓에 알아들을 수는 있어도 말할 수 없는 아이들이 늘어 갔습니다. 이처럼 '방언 박멸'을 위해 전후에도 오키나와의 교사들은 커다란

dCollection @ jeju

임무를 완수하였습니다.

일본의 가해책임

오키나와 교직원회 회장으로 류큐정부 최후의 행정주석이었고 오키나와현의 첫 지사로 혁신의 상징이었던 야라 초뵤(屋良朝苗)씨 자신이 전후에도 천황을 숭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오키나와 교사들의 반성도 천황제 비판으로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전장에 아이들을 보내고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은 있어도 그 아이들이 황군(천황의 군대)병사가 되어 아시아 각지를 침략하고 주민을 살해한 것, 그런 침략자를 자신들이 키워내고 있었던 것에 대한 인식과 반성은 어느 정도 있었을까요.

아시아 각지를 침략한 일본군은 히노마루를 휘날리며 마을과 도시로 진입하였습니다. 히노마루가 침략의 상징이었던 것에 생각이 미치자 오키나와 교사들은 반미의 상징으로서 히노마루를 내걸 수는 없었겠지요. '제자들을 전쟁터로 보내지 마라!'라는 슬로건을 일교조(日教組)는 내걸고, 오키나와의 교사들도 그 말을 되풀이합니다. 그것은 '제자들을 전쟁터로 보냈다'라는 것에 대한 반성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여기서 말하는 전쟁터는 어디인지, 누가 그 곳을 전쟁터로 만들었는지에 대해 교사들은 얼마만큼 생각했을까요. 사실 이 슬로건은 '제자들을 침략자로 키우고 아시아 각국을 전쟁터로 만든 교육자의 전쟁책임을 잊지 말아라!'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스스로의 전쟁책임과 가해책임을 직시하고 추궁해나가는 것은 정신적으로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부터라도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교사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영토 문제와 교과서 문제, 일본의 UN상임이사국 가입을 둘러싸고 한국과 중국에서 격렬한 '반일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전후 60년'이 지나도 그러한 시위가 발생하고 일본대사관과 일본계 기업이 습격당하는 일들을 두고 한국과 중국을 힐책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등한시해 온 전쟁책임과 가해책임의 문제를 지금도 여전히 추궁하고 있다는 것을 일본인도 오키나와인도 자각해야만 합니다.

dCollection @ jeju

평화교육의 중요성

오키나와뿐만 아니라 전국의 교육현장은 지금 졸업식과 입학식, 학교행사에서 '히노마루·기미가요'에 대해 엄격한 사상조사를 실시하여 학생이나 교사 할 것 없이 정부와 교육위원회의 뜻에 따르지 않는 자는 배제하고 억압하는 규정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역과 학교에 따라서는 이미 만들어진 곳도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인 것은 틀림없지만, 아직 저항할 수 있고 진실을 말할 수 있는데도 침묵하고 못 본 체 넘어가려는 교사가 너무 많습니다.

60년 전의 전쟁을 돌이켜 볼 때, 교육의 위력과 무서움을 실감합니다. 오키나와에서는 6월 23일 '오키나와 위령의 날' 전에 특설수업으로 오키나와 전투를 공부하는 시간을 만들었고 현내의 모든 학교에 정착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내용이 매우 빈약하다는 지적이 나온 지 오래되었고, 영화나 비디오를 보여주고 끝내는 학교나 교사도 많습니다. 길게 1시간을 할애해도 자신이 오키나와 전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설명할 수 없고 수업을 주도해나갈 수 없는 교사도 늘었습니다.

'전후 60년'이라는 세월은 이제 전쟁체험을 한 교사가 학교현장에 없다는 말입니다. 교사 자신이 전쟁을 공부해야만 하는데, 그러한 노력을 계속하며 평화교육을 의욕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교사가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회피하고 있는 면도 있습니다. 저도 10년간 교육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힘들다는 것은 압니다. 그래도 일선의 교사들만큼은 최선을 다해 주었으면 합니다. 교사가 열심히 이야기하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을 보고 전쟁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하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평화교육을 추진하는 교사들에 대한 압력이 거세지는 가운데, 압력을 저지하는 운동을 시민들이 담당해 나가는 것의 중요성도 통감합니다.

앞으로 중국이 정치, 경제, 문화 각 방면에서 동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해 가는 상황에서 일본인이 아무리 외면하려고 해도 역사인식 문제는 거듭해서 과제로 떠오를 것입니다. 침략과 가해의 역사를 일본이 반성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것은 침략을 당했던 아시아 당사국이며, 그 나라들을 완전히 납득시키지 못하면 일본은 아시아에서 고립되는 일만 남았지요.

그렇다면 야마토와는 다른 역사와 전쟁체험을 가진 오키나와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오키나와 교사들에게는 야마토 교사들과는 다른 과제가 있습니다.

dCollection @ jeju

오키나와는 일본과 그 밖의 아시아 각국과의 사이에서 피차별과 차별, 전쟁의 피해와 가해의 이중성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중성의 실태를 검증하고 의미를 부여하여 오키나와만의 전쟁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반성을 촉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과 반성을 눈앞에 있는 군사기지문제와 연계하여 평화교육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오키나와 교사들의 중요한 역할일 것입니다.

어머니의 전쟁체험

오키나와전 당시 외가는 오키나와 북부의 야가지섬(屋我地島)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본래는 나키진촌에서 살고 있었으며 외할아버지가 천리교(天理教) 신자였습니다. 천리교 지부가 야가지섬에 있었기 때문에 친척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집과 밭을 전부 팔고 옮겨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외할아버지가 1944년 3월 8일에 병사하게 되면서 외할머니 혼자서 어머니와 외삼촌, 이모 이렇게 셋을 키워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가는 오키나와 전투를 맞이하게 됩니다.

외할머니는 고생이 많았던 분으로 서녀로 태어나 여섯 살 때 빚 때문에 팔려가 허드렛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열다섯 살 때, 평생을 노예처럼 살고 싶지 않다는 일념으로 모자 만들기를 시작합니다. 당시 오키나와는 파나마모자의 생산이 번성하여 게이힌(역주: 京浜, 도쿄-요코하마)과 한신(역주: 阪神, 오사카-고베)의 무역상을 경유하여 구미에 수출하고 있었습니다. 밤 10시까지 허드렛일을 한 후 새벽 3시경까지 모자를 만들어 조금씩 모은 돈으로 10년간 빚을 다 갚고, 스물다섯 나이에 드디어 자유의 몸이 됩니다. 다음 해 외할아버지와 결혼하였으며 학교는 끝내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평생 글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올곧은 사람으로 고학으로 고등과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병약하기도 한 탓에 생활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도 원인이었겠지만 어머니의 언니와 오빠 둘은 어렸을 때 죽었습니다. 언니는 독사에 물려서, 오빠들은 옴이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이라면 그만한 일로 죽는 일은 없겠지만 당시는 치료를 받는 것조차 어려웠던 것입니다.

야가지섬(屋我地島)으로 옮기고 나서 외할아버지는 천리교의 교외봉사활동으로 나라(奈良)에 가게 됩니다. 결국 무리한 봉사노동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오키나와에

dCollection @ jeju

돌아온 후 세상을 떠납니다.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모자가정이면서 '기류민(寄留民, 외지인)'으로 가난했기 때문에 따돌림이 심했다고 합니다. 당시는 교사들도 가난한 집 아이는 노골적으로 차별하여 수업시간에 손을 들어도 기회를 주지 않았고, 유복한 집 아이들과 흑판 앞에 줄을 세워 복장의 좋은 예와 나쁜 예로 비교했던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이라면 인권침해라고 하여 문제가 되겠지만, 군국주의 교육시대의 교사는 고작 그 정도의 의식수준이었던 것입니다.

집도 변변치 못하여 천리교 건물 옆에 있던 초가집은 벽면 판자 틈새로 밖이 내다보이고 부엌 벽은 대나무를 엮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집 뒤쪽에는 숲이 있었고 옆으로는 무덤이 있어서 밤만 되면 외할머니는 무서움에 떨었고, 잘 때도 덮을 것이 없어서 추위를 견디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섬에서도 극빈층이라 할 정도로 가난했던 것 같습니다.

야가지섬(屋我地島) 맞은편에는 나키진촌의 운텐항(運天港)이 있어서 전시에는 해군의 특공정기지가 세워졌습니다. 섬 주변에는 일본군 함정도 모여 있었기 때문에 미군의 공격이 심했습니다. 또한 섬에는 아이라크엔(愛樂園)이라는 한센병 시설이 있었는데 그 건물을 미군이 일본군 기지로 오인하는 바람에 집중공습을 받았습니다.

자식들을 데리고 공습을 피해 이리저리 도망다니던 어느 날, 방공호에 숨어 있다가 외할머니가 잠시 잊어버린 물건을 가지러 집에 간 사이에 미군의 공격이 심해져서 외할머니는 돌아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와 어머니의 남동생과 여동생 이렇게 셋이서 호에 있었는데, 당시 세 살이었던 여동생이 심하게 울어댔습니다. 거기에 있던 섬사람들은 자기들까지 죽게 된다며 호에서 나가라고 하였고 결국 입구에 셋이서 움츠려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서도 가까스로 살아남았으나 고통은 오히려 그 후에 찾아왔습니다.

남자가 있는 집은 '전투의 성과를 올리겠다'라며 맞은편 기슭의 나키진촌에 있는 미군 창고에서 통조림 같은 것을 훔쳐 먹을 것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가족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어머니는 남동생과 함께 바닷가에 나가 미군이 버린 통조림 등이 떠내려 오는 것을 주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봉지포장의 건조 사과가 들어 있는 나무상자가 떠내려 온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 먹어보는 것으로 새콤달콤하니 맛이 있었고 상당

dCollection @ jeju

기간 그것으로 굶주림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고가 일어납니다. 외할머니가 미군이 남긴 휘발유를 주워 왔고 어머니는 남동생과 함께 그것을 램프에 넣고 있었다고 합니다. 집안이 어두워서 불을 켜려고 했던 것 같은데, 휘발유가 얼마나 위험한지 몰랐기 때문에 아궁이 옆에서 넣다가 그만 아궁이의 불이 휘발유에 인화되어 남동생 몸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불덩어리가 된 남동생은 집 앞에 있는 논에 뛰어들어 자력으로 불을 끄기는 했으나, 양팔과 등에 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외할머니는 아들을 등에 업고 수 킬로미터를 걸어 아이라크엔(愛樂園)까지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나 남동생은 그날 숨을 거두고 맙니다. 1945년 10월 8일 향년 8세였습니다. 외할머니는 관을 살 돈이 없어 건조 사과가 들어 있던 나무상자에 남동생의 시체를 넣어 묻었다고 합니다.

그 후 외할머니는 정신적인 충격으로 한 달 가량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이미 세 명의 자식을 잃고 하나 남은 아들마저 사고로 죽었습니다. 그 죽음을 자신의 부주의 탓이라고 여겨 스스로 질책하고 있었던 것이겠지요. 남편도 없이 혼자서 절망으로 몸부림치고 있었을 외할머니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옵니다.

그때 어머니는 막 열한 살이었습니다. 외할머니가 두문불출하고 있는 사이 어머니는 바다에서 조개를 잡거나 산에서 버섯을 따서 겨우 요기를 하였습니다. 외할머니가 회복되고 나서는 감자를 수확할 수 있게 되었는데 해가 바뀌자 이번에는 외할머니와 여동생이 말라리아에 걸렸습니다. 전후, 오키나와 북부와 미야코섬(宮古島), 이시가키섬(石垣島)에서 말라리아가 크게 유행하여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다시 두 사람을 간병하면서 어머니는 먹을 것을 찾아 매일 굶주림과 싸웠습니다. 딱 한 번 너무나 배가 고파 남의 밭에 있던 호박을 훔쳤던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겨우 열한 살인 아이가 그렇게 아등바등 필사적으로 '전후'를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어머니는 맞은편 기슭의 나키진촌에서 어떤 미군 병사가 바다를 건너와 속옷차림으로 마을 안을 돌아다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섬의 여자들을 노리고 헤엄쳐 온 것이었습니다. 천리교 시설과 주변의 민가에는 나키진촌에서 온 피난민이 살고 있었는데, 그 중 한 여자가 미군 병사에게 끌려갔습니다. 여자는 다음 날 돌아왔는데 미군병사들에게 밤새 강간을

dCollection @ jeju

당했다고 했습니다.

오키나와 전투의 주민희생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생각했던 것은 오키나와 전투의 희생자는 단지 전투로 인한 사망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까스로 전쟁에서 살아남았어도 말라리아와 굶주림, 질병으로 죽어 간 사람도 많았습니다. 어머니의 남동생, 내게는 외삼촌이 되는 간이치(勘一) 소년의 죽음도 사고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전쟁이 없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였습니다. 이처럼 전후의 기아와 질병, 사고와 사건에 따른 죽음도 오키나와 전투가 초래한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키나와전투의 연구자인 이시하라 마사이에(石原昌家) 오키나와 국제대학 교수는『쟁점·오키나와 전투의 기억』(사회평론사)에서 오키나와 전투의 주민희생을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1. 영·미 양군의 포폭격사(砲爆撃死), 2. 일본군(황군)에 의한 희생, 3. 전쟁으로 인한 희생

이시하라씨는 이것을 다시 자세하게 나누고 있지만 여기서는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은 영·미군의 공습과 함포사격, 지상전에서의 포·총격, 동굴과 호에 대한 공격, 학살, 강간에 따른 죽음 등입니다.

2는 일본군(황군)에 의한 주민의 죽음으로, 스파이 혐의를 씌우거나 식량과 호제공을 주저하는 등, 비협조적이었음을 이유로 자행된 살해, 호 안에서 우는 영유아의 살해와 군에 의해 호에서 쫓겨나 포격을 당하거나 강제 퇴거에 의한 말라리아와 영양실조가 가져온 죽음, 일본군의 지시와 강요로 인한 '집단사' 등입니다.

3은 비전투지역에서의 쇠약사, 병사, 소철 등에 의한 중독사, 수용소 내에서의 쇠약사, 주민들 사이의 스파이혐의 살해, 식료강탈사, 미 잠수함에 의한 소개선(疎開船)과 인양선 등의 격침사 등입니다.[7]

주의해야 할 것은 우시지마 미쓰르(牛島滿) 사령관 등이 자결하면서 일본군이 무너지고 조직적 전투가 끝났다고 일컬어지는 6월 22일[8]과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7) 『쟁점·오키나와전의 기억』(사회평론사)에서 이시하라 마사이에(石原昌家) 오키나와 국제대학 교수는 오키나와전의 주민희생을 유형별로 나누어 표를 제시하고 있다. (92~95쪽)

8) 우에하라 쇼넨(上原正稔) 저 『오키나와전 탑 시크릿』(오키나와 타임스사) 제3장 제11화「우시지마 사령관의 죽음의 수수께끼」참조

dCollection @ jeju

선언한 8월 15일 이후에도 이들 유형 중 몇 가지 죽음은 계속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메섬(久米島)에서 일본군 수비대의 나칸다카리 메이유(仲村渠明勇)씨 일가가 학살당한 것은 8월 13일이었고, 다니가와 노보루(谷川昇)씨 일가가 학살당한 것은 8월 20일입니다. 말라리아와 같은 전염병에 따른 병사나 쇠약사는 2, 3년이 지나도 계속되었습니다.

'전후'에도 전쟁이 없었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죽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쟁의 피해를 파악할 때 전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막대한 후유증으로 사람들을 괴롭혀 왔으며, 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전쟁의 트라우마를 안고 계속 고통스러워 하다가 전후 수십 년이 흐른 뒤에 자살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중에는 전쟁에서 중화상을 입거나 신체에 장애가 남아 희망을 잃고 자살한 사람들과 전쟁의 공포로 정신이 병들어 죽을 때까지 병원에 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전쟁은 끝나지 않았던 것이 아닐까요. 오랜 시간이 흘렀다고는 해도 그것은 분명 전쟁이 불러 온 '죽음'과 '병'인 것입니다.

전쟁과 차별

어머니의 전쟁체험을 생각할 때, 전시체제하나 전쟁 중의 계급·계층, 장애, 질병 등에 따른 차별문제도 지나칠 수 없습니다. 어머니와 같은 모자가정과 기류민, 빈곤층은 피난을 가거나 식량을 확보하는 데에서 더욱 가혹한 상황에 처합니다. 전쟁은 더 약한 입장에 놓여 있는 사람에게 더욱더 큰 희생을 요구합니다. 외할머니가 쓰러진 후 어머니는 어떻게 연명해 나갔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의지할 사람도 없는 섬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에 열 한 살의 생명력을 거의 바닥까지 써 버려 기억에 남길 여력조차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전쟁 중에는 남자들을 방위대와 철혈근황대, 호향대 등에 빼앗겨 여자들과 노인, 아이들만으로 도망다니던 가족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더욱이 눈이나 귀, 언어, 몸이 불편하거나 정신병을 앓고 있던 사람들과 그 가족은 도망칠 때에도 불리한 조건을 안은 채 전쟁에 휩쓸릴 가능성이 컸던 것입니다. 도망치던 도중에 더는 따라가지 못하여 버려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키나와 전투에서도 특히 가혹한 차별을 받았던 이들은 한센병 환자들입니다.

dCollection @ jeju

어머니의 이야기에 나오는 아이라크엔(愛樂園)이라는 한센병 시설도 희생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미군의 공습으로 말미암은 희생자는 한 명이었지만, 전시와 전후에 굶주림과 말라리아, 아메바성 이질 등으로 270명 정도가 사망했습니다. 신경이 마비된 불편한 손으로 호를 파야만 했기 때문에 손발에 중증의 후유증이 남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전후에도 충분한 의료조치와 식량 원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많은 사람들이 차별을 받았습니다.

1995년 6월, 오키나와현은 '평화의 초석'을 오키나와 전투의 격전지였던 이토만시(糸満市) 마부니(摩文仁)에 세웁니다. 그곳의 기념비에는 오키나와 전투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이름이 전부 새겨질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라크엔(愛樂園)과 미야코섬(宮古島)의 난세이엔(南靜園)이란 한센병 시설에서 사망한 사람들의 이름은 오랫동안 새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2004년이 되어서야 겨우 새겨졌습니다. 이들 시설에 있던 사람들은 전쟁 전과 전시, 전후에도 계속 차별을 받았으며 그러한 차별은 죽은 후에도 끝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환자였던 분들은 '나병 예방법'에 의거한 '격리정책'을 반대하는 위헌 국가배상소송을 일으켰고, 2001년에 구마모토(熊本)지방법원에서 승소했습니다. 한센병 환자였던 분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언론이 그 사실을 떠들썩하게 다루면서 드디어 이름이 새겨진 것이지요. 오키나와 전투를 생각할 때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밖에도 '평화의 초석'에 이름이 새겨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강제로 오키나와에 끌려온 조선인 노동자와 위안부들입니다. 그 중에는 일본군 장교와 함께 이름이 새겨지는 것을 거부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래 이름조차도 불분명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기록도 증언도 적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힘을 기울여 진상규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키나와에서 희생된 조선인들을 조사하고 유족에게 이름을 새기기 위한 허가를 받는 작업을 하고 있던 한국 명지대학교의 홍종필 교수가 작년 6월로 오키나와에서 조사위탁을 중지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9]

'평화의 초석'은 오타 마사히데(太田昌秀)씨가 오키나와현 지사로 재임할 때 만들어진 것으로 지금의 평화기념관과 함께 오키나와 국제평화연구소(가칭)도 만들

9) 계간지 『전야』(影書房) 3호 수록, 쓰치에 마키코(土江真樹子) 「평화의 초석·오키나와전을 기억하는 것」에서 이 문제를 자세히 보고하고 있다.

dCollection @ jeju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후텐마(普天間)기지 '이전' 문제가 초점으로 떠오르면서 일본정부의 간섭으로 이나미네 게이이치(稻峰惠一)씨가 지사가 되고 보수현정(縣政)으로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오키나와 국제평화연구소의 구상은 백지화됩니다. 또한 이나미네 보수현정은 평화기념자료관의 전시내용을 바꾸려고 하여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일본군이 저지른 주민학살과 방공호 추방 등을 은폐하고자 한 '역사수정주의' 자세는 현민의 강한 비판으로 그 뜻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를 일으켰으면서도 이나미네 지사를 비롯한 현 간부들은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돌변합니다. 홍 교수의 조사위탁 중지를 보면 현정의 자세가 근본적으로는 바뀌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키나와 전투와 위안소

오키나와의 위안부 및 위안소의 실태는 아직 해명되지 않은 것이 많습니다. 나키진촌에도 전쟁 당시 위안소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나카소네구(仲宗根區) 미야기(宮城)의원에 설치하여 요정(料亭)에서 일하고 있던 여성들이 일본군 병사들의 성 상대가 되었습니다. 그곳에 있던 여성들은 일본군이 패전하여 산속으로 도망친 후에는 다시 미군을 상대해야 했습니다. 마을에 침공해 온 미군 병사들이 마을 여자들을 덮치는 사건이 다발하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마을대표와 미군의 논의가 이루어졌고, 결국 새로운 위안소가 민가에 세워졌습니다. 그 당시 중심이 된 사람들 중에는 위안소에 여자들을 알선했던 여관주인과 당시 경방단장(警防団長)이었던 제 할아버지도 있었다고 합니다.

요정의 주인과 미군이 흥정하는 것을 옆에서 보기도 했던 아버지는 그런 식으로 미군에게 협력했던 것이 패잔병들에게 전해지면서 스파이로 의심받고 주민학살사건으로 이어지지 않았을까 하고 추측하고 있었습니다. 위안소 여자들은 하루에 30명 정도의 미군병사를 상대해야 했다고 합니다. 나키진(今歸仁) 위안소를 아직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므로 주민학살과의 관련성도 포함하여 하루라도 빨리 자료를 채록해야 합니다.

예전에 미즈키 시게루(水木しげる)의 만화에서 뉴기니아 위안소에 오키나와현 출신의 여자가 있어 조선인 위안부는 '조선삐', 오키나와인 위안부는 '나와삐'라고 불렸다는 내용을 읽고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10] 이들 위안부는 미군이 상륙

dCollection @ jeju

하기 전에 일본으로 귀환하게 되어 병사들은 부러워했으나 위안부들이 타고 있던 배가 잠수함에 격침당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기록은 남아있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은 잊어서는 안 될 것이며 앞으로도 진실을 밝혀내는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미군 병사의 성폭력

어머니의 전쟁체험에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미군 병사들이 저지른 오키나와 여성 강간사건입니다. 처음에는 주민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거나 다친 곳을 치료해 주며 주민들의 경계심과 공포심을 풀어 나갑니다. 귀축미영(역주: 鬼畜米英, 귀신이나 짐승 같은 미국과 영국)이라 하여 미군의 포로가 되면 남자는 전차에 깔려 죽고, 여자는 강간당하고 죽게 된다는 공포심을 일본군들에게 주입받은 주민들은 미군의 '친절'에 당혹해하면서도 담배와 먹을 것을 받으면서 차차 경계심이 줄어들게 됩니다. 미군의 입장에서 본다면 주민의 저항을 막고 일본군에 협력하는 것을 단절하기 위한 첫 접촉단계로써 매우 신중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선무공작(宣撫工作)의 일환이었습니다.

머지않아 후속부대가 오면서 점령자로서의 미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키나와 각지에서 강간사건이 속출했습니다. MP(미군 헌병)의 조사도 있었지만 이렇다 할 해결수단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마을 남자들은 아내와 딸이 눈앞에서 강간을 당해도 무기를 든 미군 병사에게 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껏해야 미군이 오면 가스통을 두들겨서 여자들을 도망치게 하는 등의 자위수단을 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11]

내가 어렸을 때 할머니에게 들은 얘기로는 전쟁 중에 여자들은 얼굴에 아궁이의 재를 바르거나 손등에 새겨진 파지치를 보여서 미군 병사를 쫓아내려고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효과가 있었을까요? 또, 미군 병사만이 아니라 일본군 병사의 강간도 있었습니다. 오키나와 전투에서 오키나와 여성들은 미군과 일본군 양쪽으

10) 미즈키 시게루(水木しげる)「우당탕탕 표류기」제10회「종군위안부」.「빅 코믹」1999년 5월 25일호(小学館) 수록.『미즈키 시게루의 라바울전기(戰記)』(치쿠마 문고)에도 '나와삐'에 대한 기술이 있다(30쪽).

11) 나고시(名護市) 가쓰야마구(勝山区)에서는 오키나와전 종료후인 1945년 여름 경, 계속되는 미군병사의 강간에 분노한 주민들이 궐기하여 3명의 미군병사를 살해한 사례도 있다. (오키나와타임즈 2000년 4월 26일 석간)

dCollection @ jeju

로부터 성폭력을 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전후에도 계속됩니다.

말할 수 없었던 전쟁체험

내가 대학 3학년 때 친척 할머니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그 할머니는 치매로 배회하는 증상이 있었는데, 어느 날 밤 집을 나가 길을 잃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사방을 찾아 돌아다니다 밭 한가운데에 쪼그려 앉아 있는 할머니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집으로 모시고 가려는 가족에게 '병사들이 온다니까'라고 하면서 할머니는 벌벌 떨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병사가 일본군인지 미군인지, 할머니가 구체적으로 어떤 체험을 했는지는 모릅니다. 다만 전후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도 치매에 걸리고 나서 그 기억이 되살아나 도망치지 않고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체험이 있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 할머니의 이야기는 전쟁이 사람의 마음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기는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 시간의 흐름과 함께 잊히거나 희미해진 것처럼 보이는 기억이 어느 날 갑자기 생생하게 되살아나거나 그 사람을 위협하기도 하고, 그 사람의 의식의 밑바닥에서 삶의 방식이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현재 '전쟁 트라우마'로 불리는 그와 같은 문제는 전쟁을 체험한 모든 사람들에게 크든 작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트라우마가 너무나 깊어서 기억이 되살아나면 미쳐버릴 것 같거나 두통과 구토가 엄습하여 앓아눕게 되는 사람은 자신의 전쟁체험을 숨기고 말하지 않았겠지요.

미군이나 일본군 병사에게 강간당한 여성이 직접 체험을 공개한 예는 드뭅니다. 하지만 많은 목격증언이 말할 수 없었던 전쟁체험을 대신 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위안부 문제와 함께 전쟁과 성폭력은 결코 떼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후'에도 미군의 성폭력 문제는 지속됩니다.

말할 수 없었던 것은 누군가의 목격담이 아니라면 증언으로 남지 못합니다. 우리들은 이처럼 할 수 없었던 말, 침묵의 안쪽에 숨겨져 있는 말에 귀를 기울이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미군포로가 되는 것보다 낫겠다는 생각에 자기 손으로 육친을 살해한 사람, 다치고 쇠약해져 움직일 수 없게 된 육친과 친구를 버릴 수밖에 없었던 사람, 울음을 멈추지 않는 갓난아기를 주위의 위협 때문에 질식사시켜야 했던 사람, 일본군과 미군에게 성폭력을 당해야만 했던 사람, 오키나와 전투에서

dCollection @ jeju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체험을 한 사람들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은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으며 절대침묵의 저편에 놓이게 됩니다. 적어도 그들이 어떻게 살았으며 어떻게 죽어 갔는지를 앎으로써 그들이 하지 못했던 말을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투가 치열했던 오키나와 남부 지역에는 일가가 전멸한 집도 있고 육친의 대부분을 잃은 사람, 전쟁고아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전투에 말려들어 살해당한 사람이 없는 것만으로도 우리 가족은 그나마 행운이었는지 모릅니다. 당시 류큐제도에 있던 오키나와인의 4분의 1이 희생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숫자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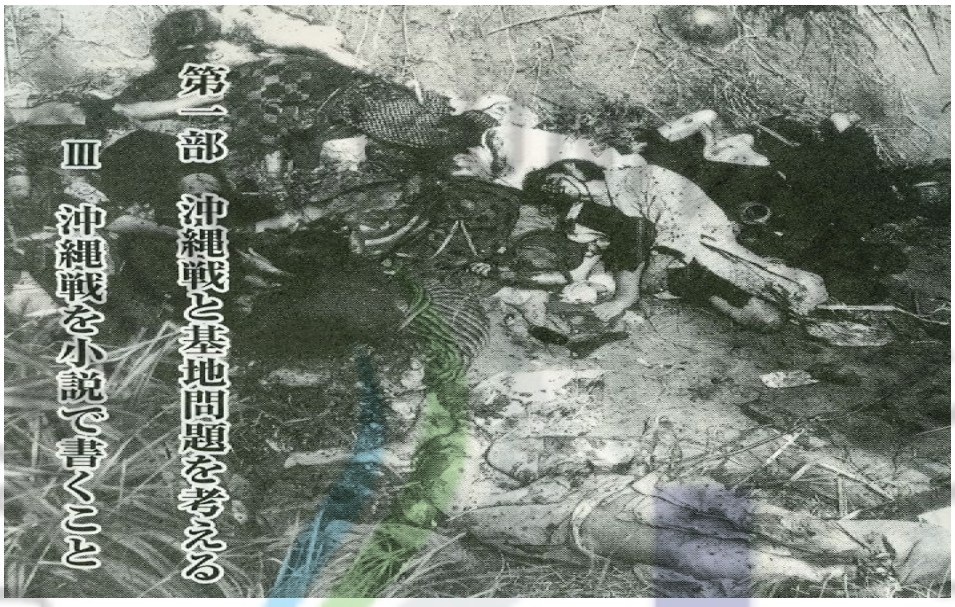
수용소에 있었을 때 할아버지는 미군트럭에 실려 남부지역으로 끌려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시체들을 치우는 일을 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부패하여 부풀어 오른 시체들을 모아 트럭으로 옮겨가서 묻는 작업을 온종일 했다고 합니다. 그때 할아버지는 남부 지역 전투의 참혹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60년 전 6월, 그곳은 말 그대로 지옥이었던 것입니다.

제게는 부모님과 조부모님에게 들은 전쟁체험이 곧 육친이 살아간 역사이며, 더없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분들이 이야기하시던 목소리나 표정은 앞으로도 내 마음 깊은 곳에 계속 남아있을 것입니다. 제게 있어 오키나와 전투를 생각하는 것은 그 실상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육친이 살았던 역사를 공유하고 생생한 기억으로 되살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방법 중의 하나가 바로 오키나와 전투를 소설로 쓰는 것이었습니다.

dCollection @ jeju

제 1부 오키나와 전투와 기지 문제를 생각한다

Ⅲ. 오키나와 전투를 소설로 쓰는 의미



미군은 이 사진을 포격에 따른 희생자로 추정된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집단자결'의 현장이라는 견해도 있다. (1945년 6월 미군 촬영)

화염방사기로 방공호를 공격하는 미군 병사. 오른쪽 구석은 뛰쳐나올 일본군 병사를 겨냥하여 대기하고 있는 미군 병사. (1945년 미군 촬영)

dCollection @ jeju

전쟁 기억의 공유

대학에 들어가 오키나와기지의 실태를 알게 되면서 새삼 부모님과 조부모님에게 들은 오키나와 전투의 문제를 생각하게 되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소설을 몇 편 썼습니다.

대학 1학년 축제 때 국문과 동급생들끼리 문집을 내보자는 이야기가 나와 15장 분량의 『노래』라는 단편소설을 게재했습니다. 제대로 완성한 제 첫 소설입니다. 『노래』에서는 철혈근황대(鐵血勤皇隊)에 동원되기 전에 아버지를 집으로 돌려보내 손톱과 머리카락을 잘라 할머니에게 드리게 했던 이야기, 가지 말라고 막았던 할머니의 이야기 등을 소설 장면에서 사용하였습니다.

그 무렵부터 막연하나마 소설을 쓰면서 오키나와 전투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도 『평화로라는 이름의 거리를 걸으며』, 『바람소리』 등 오키나와 전투와 그것이 사람들에게 끼친 영향과 기억의 문제 등을 소설로 썼습니다.

『평화로라는 이름의 거리를 걸으며』는 1986년에 쓴 소설로, 배경이 된 에피소드 중 하나가 앞에 등장했던 친척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치매에 걸린 할머니가 나하시(那覇市)의 평화로를 헤매고 있고 손자인 마사시가 찾아내어 가까이 다가가지만 달아나 버립니다. 벚꽃 동산을 올라 공원 나무그늘 아래에 숨어있던 할머니 우타는 '쉿! 군인이 온다니까'라고 말하며 겁에 질려 실금하게 됩니다. 이런 형태로 할머니의 마음속 깊이 들어있는 오키나와 전투의 기억을 그려냈습니다.

소설의 무대를 '평화로'로 한 것은 전쟁으로 남편을 잃은 여자들이 생선과 야채, 일용잡화를 팔아 아이들을 키웠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 그런 여자들이 평화로에도 있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대학에 들어가 처음 2년간 저는 나하시(那覇市) 요기(与儀)에 살고 있었습니다. 국제로에서 영화를 본다거나 책을 사고 집으로 걸어가는 길에 평화로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여자들이 길바닥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가이난(開南) 도로에는 그 소설을 썼던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고무대야에 얼음을 채워 노상에서 생선을 파는 여자들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평화로'라는 이름은 1948년에 공모를 거쳐 정해졌다고 하는데, 그 이름에는 오키나와 전투를 경험한 서민들의 소망이 잘 담겨져 있어서 선정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dCollection @ jeju

주인공 우타는 그 '평화로'에서 장사를 해서 아이들을 키웠지만 지금은 치매에 걸려 길거리를 자주 배회하는 바람에 이웃에 폐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우타를 부모처럼 섬기는 후미라는 생선장수가 있습니다. 우타를 끔찍이 생각하는 그녀는 우타의 체험이 자신의 체험이라고 생각할 만큼 전쟁체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후미가 기억하는 소설 속의 체험은 할머니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거의 그대로 사용하였습니다.

아버지의 남동생이며 제게는 숙부인 가쓰야(勝也)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본래 병약하고 신장이 나빴던 것 같습니다. 전쟁 중 피난생활로 무리를 한 탓도 있었는지 오키나와 전투가 끝나고 2년 후 여름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어린 숙부가 죽기 직전 할머니는 그를 방에서 재우고 있었는데 전신이 붓고 얼굴도 부어올라 스스로 눈을 뜰 수도 없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숙부가 자꾸 머리를 움직이는 것을 본 할머니는 처음에는 집안이 추워서 좀 더 햇볕이 잘 드는 곳으로 옮겨달라는 것이려니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숙부 곁으로 가서 얼굴을 들여다봤더니 뭔가를 호소하는 듯이 보였다고 합니다. 잠시 후 할머니는 문득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내 얼굴이 보고 싶어 그랬던 거로구나!'

이미 목소리를 낼 수도 눈을 뜰 수도 없게 된 숙부의 퉁퉁 부어오른 눈꺼풀을 손가락으로 벌려 주었더니 눈곱이 가득 찬 눈으로 할머니를 쳐다봤다고 합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숙부는 세상을 뜹니다. 향년 4세였습니다.

할머니에게 들은 이 이야기를 주인공 우타의 전쟁체험으로 썼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 후 할머니는 장롱서랍에서 하얀 종이꾸러미를 꺼내어 보여주었습니다. 그 속에 있었던 것은 짙은 녹색의 미군 헝겊모자로 숙부가 움직일 수 있었을 때 썼던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것을 유품으로 계속 간직하고 있다가 내게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이 모자를 나와 함께 관 속에 넣어 주렴."

할머니가 돌아가신 것은 1995년이었습니다. 장례식과는 별도로 가족과 친지들이 모여 고인을 밤새 추모하는(쓰야·通夜) 날, 그 모자가 떠올라 장롱서랍을 열어 보니 종이꾸러미가 예전 모습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꺼내어 숙부들과 숙모들에게 보여드렸더니 그때까지 모자가 남아 있었다는 사실에 모두들 매우 놀라는

dCollection @ jeju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세상을 뜬 지 50년이 넘은 형제를 떠올리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생전에 할머니가 관에 함께 넣어줬으면 했다는 말씀을 드리자 숙모들은 망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가쓰야 숙부는 단 한 장의 사진도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자가 유일한 유품이었습니다. 그것을 관에 넣는다는 것은 숙부들과 숙모들에게는 형제의 유품이 없어져 버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모두들 어떻게 할까 망설였지만, 논의 끝에 결국 할머니의 유지를 존중하기로 하고 입관할 때 할머니의 손에 들려 보냈습니다. 아버지를 비롯하여 숙부들과 숙모들도 저 세상에서 어린 아들과 재회한 할머니가 그 모자를 씌워주는 모습을 떠올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전쟁체험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었지만, 오키나와 전투의 희생자는 전투때문만은 아닙니다. 숙부의 죽음도 전쟁이 불러온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병이 있던 사람들이 전쟁에 쫓겨 산야로 도망치면서 비를 맞고 먹을 것도 없이 동굴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처럼 힘든 상황들이 전후의 혼란 속에서 죽음을 재촉했던 것입니다.

천황의 전쟁책임

소설『평화로라는 이름의 거리를 걸으며』에서는 오키나와 전투의 문제와 함께 지금의 천황이 아키히토 황태자 시대에 오키나와를 방문했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지금도 천황을 비롯한 '황족'이 오키나와를 방문할 때마다 지나친 경비가 문제가 되고 있으나, 1983년 헌혈추진운동 전국대회에 황태자가 방문했을 때에는 '정신장애인은 밖으로 내놓지 말라'라는 차별의식이 그대로 드러난 지시가 경비 당국으로부터 내려졌습니다. 이 소설은 그러한 사회상황을 배경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황태자가 오키나와를 방문하는 모습을 TV나 신문으로 보면서 오키나와 전투와 쇼와천황, 황족의 전쟁책임을 불문에 부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1975년 국제해양박람회가 개최되어 아키히토 황태자가 오키나와를 방문하였을 때 히메유리탑에서 화염병을 투척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격렬한 반천황감정과 행동에 겁을 먹었는지, 아니면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약 10만 명의 오키나와 주민을 죽게 한 것에 따른 책임추궁이 싫었던 것인지 72년 오키나와의 '일본복귀' 후에도 쇼와천황이 오키나와에 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dCollection @ jeju

1987년에 복귀 15주년을 기념하여 오키나와에서 국민체육대회가 개최되었을 때 쇼와천황의 오키나와 방문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회 개최를 앞두고 졸업식과 입학식 행사에서 '히노마루·기미가요'를 강요당하면서 오키나와의 교육현장은 대혼란을 겪습니다. 천황방문을 위한 사전준비였으나 결국 쇼와천황은 암에 걸려 오키나와 땅을 밟을 수 없었습니다. 병으로 오키나와 방문을 단념했다는 보도를 들었을 때 저는 오키나와 전투에서 살해된 사람들의 분노와 원한이 쇼와천황의 육체에 달라붙은 것만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국체호지(國體護持)', 즉 자기보신을 위해 전쟁을 장기화하여 오키나와를 '희생양'으로 만들고, 나아가 천황 교서[12]를 맥아더에게 보내어 오키나와를 미국에 팔아치운 것 등을 반성하기는커녕 자신의 전쟁책임을 계속 숨겨온 소심한 사람이 뻔뻔스럽게 오키나와 땅을 밟는 것이 허락될 리가 없습니다. 살아 있는 우치난츄들이 천황의 오키나와 방문을 막을 수 없음을 알게 된 오키나와 전투의 희생자들이 천황이 오키나와 땅을 밟지 못하도록 저승으로 빨리 데려갔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오키나와 전투와 특공작전

『바람소리』라는 작품을 처음 쓴 것은 1985년입니다. 그 해는 '전후 40년'에 해당합니다. 이 소설에서는 오키나와 전투 중에 일어난 특공대 젊은이의 시체를 풍장(風葬)하는 장면을 그렸습니다.

오키나와 전투에서는 특공대의 공격이 하늘과 바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특공기가 미군함으로 돌격하는 모습과 해안에 표착한 비행병의 유해에 대한 이야기를 조부모님에게 들었습니다. 나키진촌(今歸仁村) 북쪽에 이에섬(伊江島, 이에지마)이 있습니다. 전시에 이에섬에는 극동 최고로 불리는 비행장이 건설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미군의 치열한 공격을 받게 됩니다. 주민들도 방위대로 동원되었으며 일본군 병사를 포함하여 총 4,700명 정도가 전사한 격전지입니다. 이에섬과 모토부반도를 공격하는 미군함정에 일본 특공기가 돌격하고 있는 것을 조부모님은

12) '천황 교서'는 신도 에이치(進藤栄一)씨가 발견하여 잡지 『세계』1979년 4월호 수록 논문 '분할된 영토'에 공표되었다. 여기서는 『오키나와현 평화기념자료관 종합안내』에 게재되어 있는 『오키나와와 천황』(아케보노 출판)의 번역문을 소개한다. 또한 동 '안내'책자에는 원문 복사본도 게재되어 있다.

dCollection @ jeju

피난 중이었던 오토하산에서 목격하게 됩니다.

이미 일본군은 전력도 바닥난 상태여서 정비불량인 비행기는 물론 연습기마저 동원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비행병도 비행시간이 부족하고 기능이 미숙한 채로 오키나와로 날아갔습니다. 제공권은 미군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공기의 대부분은 도중에 대기하고 있던 미군기의 먹이가 되어 버렸습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로는 겨우 오키나와에 도착한 비행기도 미군의 대공포화 공격을 피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미군도 특공작전의 대처법을 연구하고 있었으며 탄약은 얼마든지 있었기 때문에 탄막을 쳐서 방어했습니다. 그것을 뚫고 기체를 조종하여 적기로 돌진하는 자살공격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대본영이 발표한 화려한 전투 성과와는 달리 특공기의 대부분은 추락하였던 것입니다.

어느 날, 특공기 한 대가 자살공격에 성공하여 미군함은 검은 연기에 휩싸였고 연기가 사라졌을 때는 이미 배의 형체마저 없어졌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일행은 당연히 기뻐했지만 그런 일은 몇 번 없었다고 했습니다.

자살공격을 시도했다가 적의 공격으로 추락하는 비행병들은 바닷물에 잠겨 '물먹은 시체'가 되어 사라져 갔을 것입니다. 그들 중 몇 구는 나키진촌이나 모토부(本部) 해안에 떠올랐습니다. 할머니는 두 명의 특공대원 시체를 보았다고 하는데, 하나는 해안에 있는 바위에 걸려 파도에 흔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아주 끔찍한 모습으로 떠내려 왔다고 했습니다. 다른 목격자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아도 썩어 문드러지고 손상되어 머리나 손발이 없어진 시체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시체들을 건져내어 묻었다는 이야기가 나키진촌이나 모토부에는 더러 있습니다.

이 소설에서는 벼랑 위의 풍장(風葬)터에서 불가사의한 소리를 내는 '우는 머리'라는 두개골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특공대원의 유골로 관자놀이에 생긴 빈 구멍을 바람이 지나갈 때마다 너무나 슬픈 소리를 내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우는 머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발상은 저의 조부모로부터 들은 얘기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dCollection @ jeju

'죽음의 미학'이 왜곡하는 것

재작년(2003년)에 소설『바람소리』를 영화화하게 되어 각본을 썼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소설을 대폭 수정하게 되면서 예전부터 가봐야겠다고 생각했던 가고시마현(鹿兒島縣) 치란쵸(知覽町)의 치란특공평화회관을 다녀왔습니다.

반나절 걸려 유서를 읽고 전시실을 견학하고 나서 느낀 점과 생각한 점을 쓰려 했더니 그곳에는 비행병들이 치란기지에 와서 출격할 때까지의 일은 전시되어 있는데 비행병들이 오키나와에서 실제로 어떻게 죽었는지의 기록이 누락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서와 출격하기 전에 찍은 젊은이들의 사진, 비행기를 전송하는 치란 사람들의 마음을 쓴 글과 손을 흔드는 모습의 사진, 진열된 군복과 훈장, 일장기에 빼곡하게 한 마디씩 적어놓은 메모 등의 전시물을 보고 있으니 특공작전을 비극이라고 보든 나라를 위해 순직한 명예라고 보든 그곳에는 '죽음의 미학'이 만들어내는 요소가 많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치란기지나 가노야(鹿屋)기지를 출발한 젊은이들이 오키나와에서 어떻게 죽어갔는지는 조부모님이 말한 그대로였던 것입니다.

『바람소리』에서는 바다에 격추되어 해안으로 표착한 시체를 마을 사람들이 풍장터로 옮겨 몸을 깨끗이 닦습니다. 그것을 본 소년의 눈에는 시체가 아름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후 시체는 게나 소라게에게 전부 뜯어먹히게 됩니다. 군가 '우미유카바(바다에 가면)'에 나오는 가사처럼 '바다에 가면 물먹은 시체'가 되겠다는 것은 육체가 손상되고 부풀어 올라 썩어 문드러져 상어나 물고기, 게, 소라게에 뜯겨먹힌다는 것입니다. 표착한 시체의 참혹한 모습을 본다면 특공작전을 미화하는 이미지 조작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으로 말하면 특공작전을 미화한다는 것은 오키나와에서 비행병들의 처참한 죽음의 실상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은 아닐까요.

누락된 것은 오키나와에서의 죽음의 구체성만은 아닙니다. 치란기지에서 출격에 이르기까지의 역사, 즉 중국과 조선, 아시아 각국을 침략한 역사도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선인 특공대원을 언급하는 일은 있어도 근본적으로 왜 그들이 '일본인'으로서 일본을 위해 싸워야만 했는지, 문제를 심도 있게 파헤치지는 않습니다. 일본의 식민지로 지배당하면서 조선인들이 동화(同化)와 차별로 고통

dCollection @ jeju

받은 것은 오키나와인 이상이었습니다. 차별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본인 이상으로 '일본인'처럼 되려고 했던 심정은 오키나와 전투에서 죽어 간 오키나와의 학도병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처럼 굴절된 심정은 일본의 가혹한 식민지 지배를 알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공작전이라는 15년 전쟁의 최종단계 작전만을 시야에 둔 채, 그 시점에 도달하기까지의 침략과 패전의 역사과정 그리고 오키나와에서 무참하게 죽은 전후의 역사와 사실을 외면하면 '국가를 위해 싸우다 산화한 젊은이들'이라는 미담이 성립할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아시아 각국을 침략하고 해를 끼친 일본의 역사와 전쟁책임은 불문에 부치게 됩니다. 그리고 '국체호지(國體護持)'를 위해 전쟁을 장기화하고 오키나와 전투와 특공작전을 시행한 천황과 군 중수부의 책임도 역시 불문에 부치게 되는 것입니다. 치란특공평화회관을 다녀오면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특공작전에서 죽어간 사람들의 죽음을 '개죽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 죽음을 미화하는 것 역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민중의 체험과 기억을 담는 글쓰기

『바람소리』의 내용에 '우는 머리'라는 두개골이 내는 소리를 들은 마을 사람들 중에는 두통과 가슴의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바람소리』는 죽은 이가 내는 언어화되지 않은 소리로 가슴속 깊이 새겨진 전쟁의 상처를 긁어대는 소리인지도 모릅니다. 오키나와에는 아직 수습되지 않은 유골이 수천 구나 있다고 합니다.

전쟁이 끝나고 몇 년 후인지 모르겠지만 아버지는 오토하산에 올라 우에하라(上原) 상등병이 죽은 장소를 찾아봤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무가 우거져 있어 장소를 찾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우에하라 상등병의 유골은 지금도 오토하산에 묻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유골들의 소리없는 함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그 소리가 전쟁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기억과 어떻게 이어져 어떻게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 『바람소리』를 쓰는 것은 그러한 것을 나름대로 생각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바람소리』를 쓰고 10년 후인 1995년에 『물방울』이라는 소설의 초고를 썼습니다.

dCollection @ jeju

1995년은 '전후 50년'이 되는 해이자 한신·아와지(阪神·淡路)대지진과 도쿄 지하철 사린가스 사건, 미군병사 소녀강간사건이 일어나 '전후'라는 시공간이 크게 바뀐 중요한 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해 여름에 중국에 다녀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루거우차오(역주: 蘆溝橋, 중일전쟁의 발단이 된 양국 군대의 충돌사건이 일어난 곳)와 그 근처에 있는 항일전쟁기념관, 남경시의 남경학살기념관을 찾아 남경학살 생존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방울』과 그 후에 쓴 『혼 불어넣기』, 현재 잡지 『전야』에 연재하고 있는 소설 『눈(眼) 속의 숲』도 오키나와를 다루고 있습니다. 처음 『노래』라는 소설에서 오키나와 전투를 다루고 나서 지금까지 제가 소설에서 써 온 것은 대국적인 전쟁의 파노라마나 전투의 모습이 아니라 전쟁 속에서 오키나와의 민중이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죽어 갔는지, 살아남은 사람들은 전쟁의 기억을 마음속에 담아둔 채 전후를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이 제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오키나와 전투에 대해서는 방대한 증언이 있으며 자료와 연구서도 있습니다. 해마다 사진과 영상을 포함한 새로운 자료가 나옵니다. 그러한 증언과 자료를 읽는 것은 물론 한 사람이라도 많은 체험자의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시간과 힘이 모자라 계획했던 것의 10분의 1도 할 수 없지만, 오키나와 전투를 기점으로 삼아 아시아·태평양전쟁, 제2차 세계대전에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전쟁을 생각하고, 오키나와의 기지문제를 생각하고, 그 안에서 소설을 쓰고 더욱 더 생각하는 것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카메라가 찍지 않았던 오키나와 전투

전후 60년이 지나고 이제 우리들이 오키나와 전투를 알기 위한 방법은 체험자의 증언을 듣거나 남겨진 기록을 읽는 것, 또는 사진이나 비디오 영상을 보거나 전적지를 방문하는 것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사진이나 영상은 시각에 호소하기 때문에 영향력이 크며 지금까지도 커다란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앞으로 그 역할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진이나 비디오영상의 대부분은 미군의 기록반이 찍은 것으로 미국 국립공문서관이나 대학 등의 연구기관에서 수집한 것입니다.

dCollection @ jeju

그러한 사진과 영상은 어디까지나 미군 전투의 기록과 전술 연구 등의 군사이용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찍은 것입니다. 그것으로도 오키나와 전투를 어느 정도 알 수는 있겠으나 다만 카메라의 시점을 주의해야만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찍을지를 판단한 것은 미군이며, 미군의 선택에 따른 한정된 영상밖에 없습니다. 카메라의 프레임 밖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으며 카메라가 찍지 못했던 오키나와 전투는 무엇인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봐야 할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강조하는 것은 고등학교 동급생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친구의 어머니가 오키나와 전투의 기록필름을 보더니 이것은 사실을 찍은 것이 아니라고 했답니다. 그녀는 전쟁 당시 어린아이였으며 가족과 함께 미군의 수용소에 들어갔는데, 마을 사람들이 줄을 지어 수용소 입구로 걸어갔더니 입구 앞에서 미군의 촬영반이 카메라를 들고 주민들을 찍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촬영반의 뒤쪽에는 미군 병사 몇 명이 카메라의 앞을 지나간 마을 사람들의 행렬에서 여자들을 끌어내어 덤불 속으로 데리고 가서 차례차례 강간했다고 합니다. 동급생의 어머니는 그것을 목격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촬영반의 카메라가 동료들이 민간인 여성을 강간하는 장면을 찍을 리가 없습니다. 오키나와 전투의 기록필름에는 미군에게 '보호'되어 수용소로 향하는 주민의 행렬이 자주 나옵니다. 그 영상 프레임 밖에서 일어난 사실을 본 동급생의 어머니는 미군이 촬영한 영상의 문제를 직감했던 것입니다.

오키나와 전투의 기록사진이나 영상을 보고 있으면 방공호에 숨어있던 주민을 미군이 보호하고 먹을 것을 제공하거나 상처를 치료하는 장면이 많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팔에 안고 구출하거나 입가에 물병이나 스푼을 대고 있는 사진도 있습니다. 그것들은 분명 사실이겠지요. 하지만 미군 병사의 '인간성'을 강조한 그러한 영상의 바로 옆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키나와 전투에서 주민들의 죽음을 누가 초래하였는지를 말한다면 그 대부분은 미군이라 할 것입니다. 주민의 죽음은 일본군에 대한 공격에 말려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석하는 것으로 주민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무차별 폭격과 포격을 가한 미군의 문제를 불문에 부쳐도 괜찮단 말입니까? 또, 베트남과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에서 주민학살과 포로학대를 일삼아 온 미군이 오키나와 전투에서만은 신사적으로 행동했다고 할 수 있을런지요. 오키나와 전투에서 미군이

dCollection @ jeju

저지른 주민학살의 기록이 적은 것은 직접 목격한 일본군 병사와 주민 대부분이 살해되었고, 취재하는 미디어도 적었으며 미군이 기록하는 일도 없었기 때문은 아닐런지요.

오키나와 전투의 사진에서도 노상에 쓰러진 노파나 파리가 들끓는 아이들 등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 어떻게 살해되었는지는 명시하지 않고 마치 미군과는 아무 상관없이 죽은 것처럼 설명하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전투에 말려들어 죽은 주민'이라는 식으로. 사진이든 영상이든 카메라의 프레임 밖에서 있었던 전쟁을 알기 위해 노력하고 상상력을 동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누가, 어떻게 주민을 살해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해야만 합니다.

살해당하는 측의 관점

오키나와에서는 미군이 촬영한 영상을 모아 편집하고 영화나 비디오로 만드는 '1피트 운동'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작된 영화나 비디오 중에서 미군 병사가 화염방사기로 사탕수수밭을 태우거나 방공호 안에 분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탕수수밭이든 동굴 안이든 화염방사기를 분사하면 불덩어리가 되어 뛰쳐나오거나 화염에 휩싸여 괴로워하며 뒹굴다 죽은 주민이 있을 것입니다. 미군은 화염방사기의 불에 쫓겨 사탕수수밭에서 도망쳐 나온 주민과 일본군 병사를 겨냥해서 쏘았을 것이며 숯덩이가 되어 연기를 내뿜고 있는 시체가 여럿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타서 눌어붙은 시체를 찍은 사진은 있는데 화염에 휩싸인 주민과 일본군 병사의 모습을 영상으로 본 적은 없습니다. 만일 있다고 해도 지나치게 잔학하다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타 죽는 주민과 일본군 병사의 모습은 보지 않은 채, 화염방사기를 분사하는 미군 병사의 뒷모습과 전차만을 보고 오키나와 전투를 인식한다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그것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전쟁을 미군의 관점, 살해자 측의 관점에서 봐 버리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카메라의 위치를 생각하면 화염방사기를 분사하는 미군 병사나 전차의 바로 뒤나 비스듬한 각도로 뒤에서 찍고 있는 영상이 대부분입니다. 불은 바로 앞에서 맞은편으로 분사되기 때문에 우리들은 공포심 없이 그 영상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동굴 안이나 사탕수수밭에 숨어 있던 주민과 일본군 병사들은 어떤

dCollection @ jeju

관점에서 화염방사기의 불꽃을 보고 있었을까요? 다가오는 미군 병사가 화염방사기의 발사구를 겨냥합니다. 공포와 긴장으로 눈을 동그랗게 뜬 주민과 일본군 병사들의 눈에 붉은 빛이 보이고 다음 순간 열풍과 함께 발사된 불덩어리가 안구를 태우고 전신은 화염에 휩싸여, 열풍을 들이마신 폐도 타서 호흡도 못하고 고통스러워하며 뒹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죽은 사람의 눈에 비친 최후의 광경은 상상해 보지도 않고 미군이 찍은 영상만 넋을 잃고 본다면 공격하는 군대의 관점으로 내재화할 위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민의 관점'의 중요성

비단 화염방사기의 장면만은 아닙니다. 미군병사가 총격하는 장면이나 전차가 진격하는 장면, 방공호에 폭탄을 떨어뜨리거나 함포사격으로 섬을 폭격하고 돌진해 오는 특공기를 격추하는 장면 등 모든 장면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라크전쟁 때 미군의 임베드 프로그램(역주: embed program, 2003년 3월 20일 시작된 이라크전쟁에서 미국이 처음 실시한 종군기자들의 동행취재 프로그램)이 문제가 되었는데 영상이 어떤 관점에서 촬영되고 있는지, 무엇이 찍히고 무엇이 찍히지 않는 것인지의 문제로 이는 오키나와 전투의 그것과도 공통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군이 기록한 사진이나 영상을 볼 때에는 오키나와 주민의 시선으로 재검토하고 검증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때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주민의 전쟁체험 증언기록입니다. 오키나와에는 현(懸, 켄)과 시정촌(市町村, 시쵸손), 자(字, 아자) 단위로 수집·기록한 증언집과 개인이나 단체에서 발간한 증언집 등 막대한 양의 증언집이 있습니다. 그것을 읽음으로써 총격당하는 관점, 불에 타는 관점, 살해당하는 관점, 영상에 찍히는 자의 관점에서 전쟁을 다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육친을 포함하여 전쟁을 체험한 사람들에게 직접 증언을 듣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오키나와에서는 '류큐호(역주: 琉球弧, 일본 규슈 남쪽 맨 밑에서 대만에 이르는 활처럼 연결된 수많은 섬들)를 기록하는 모임'에서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해당지역의 섬 언어로 오키나와 전투 체험자의 증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군이 기록한 필름을 수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주민의 증언을 비디오로 기록하여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 전문가만이 아니라 시민들까지 자기 육친의

dCollection @ jeju

모습과 함께 육친의 목소리로 오키나와 전투의 증언을 기록한다면 그것은 더욱 의의가 클 것입니다.

오키나와 전투에 국한하지 않고 전쟁을 다각적이고 종합적으로 생각하기 위해 미군과 일본군이 남긴 기록과 역사, 장교의 수기도 읽어보아야 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보다 '낮은 관점'에서 본 전쟁으로서 무명병사나 서민들의 전쟁체험 기록을 읽는 것을 가장 중시하고 싶고 그 관점으로 전쟁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키나와 전투의 특징은 주민의 희생이 너무나도 컸다는 점입니다. 병사와 군속들 중에도 방위대와 호향대, 철혈근황대 등 일본군에 동원된 오키나와 주민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오키나와에서 죽은 일본군 병사의 대다수는 고향에 돌아가면 농민이나 노동자로 살아갔을 하급 병사들입니다. 그러한 '서민의 관점'에서 오키나와 전투를 보지 않는다면 죽은 자들의 참혹함이나 원통함은 알지도 못할 것이며 오키나와 전투를 교훈으로 삼을 수도 없습니다.

오키나와 전투와 현대 전쟁의 관계

보다 '낮은 관점'에서 전쟁을 본다는 것은 과거의 전쟁뿐만 아니라 현재 일어나고 있는 전쟁을 볼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키나와 전투의 계승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러한 '관점'의 계승이 아닌가 합니다.

2001년 9월 11일 미국에서 자살테러공격이 발생하고 부시행정부는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보복공격을 감행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의 거리와 산악부가 폭파되고 있는 TV영상을 본 어머니는 오키나와 전투가 생각난다고 말하면서 폭격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슬퍼했습니다. 미군의 폭격을 받았다는 공통의 체험을 공유하는 사람으로서 어머니는 공격받고 살해당하는 측의 관점에서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격하는 측인 미군은 '핀 포인트 공격'이라 칭한 미사일 공격 영상을 내보내어 마치 민간인의 살해를 최소한으로 막고 있는 듯한 선전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알자지라 등 중동 미디어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주민의 피해를 전하고 있지만 일본에서 방영되는 대부분의 영상은 미군이 제공한 것이거나 미군과 행동을 함께하고 있는 언론에서 촬영한 것이 훨씬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전쟁을 보는 관점을 미군과 공유하게 됩니다. 그처럼 공격하는 측의 관점에서 규정한 전쟁

dCollection @ jeju

을 끊임없이 상대화하고 무너뜨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공격받는 측의 관점에서 미군과 그들의 수행 언론이 찍은 영상을 뒤집어 보는 상상력을 발휘해야만 합니다.

어머니의 말을 듣고 나서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키나와 전투 당시 동굴에 숨어 있던 일본군 병사와 주민,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산악부의 동굴에 숨어 있던 탈레반 병사와 주민의 유사성입니다. 압도적인 무력의 차이 앞에서 지리적인 특성을 살려 게릴라전으로 싸울 수밖에 없었지만, 그것마저도 힘들어 동굴 구석에서 미군의 공격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미군은 무차별 폭격과 미사일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에서 오키나와 전투와 아프가니스탄은 너무나 닮은 것이 아닌지, 그리고 미군의 공격도 똑같은 발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노로 구니노부(野呂邦暢)의 소설 중에 『성채의 겨울』(『풀검』 분슌문고 수록)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자위관(自衛官)을 주인공으로 한 작품으로, 그 안에 산화알루미늄 분말에 휘발유를 넣고 휘저어 젤리상태로 만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알루미늄 분말은 발화성이 강하여 휘발유와 섞으면 화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화염방사기의 연료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오키나와에서 방공호와 동굴, 사탕수수밭에 숨어있는 일본군 병사와 주민들을 태워 죽인 불은 그렇게 알루미늄 분말로 화력을 강화한 화염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도 동일한 화염이 사용됩니다. 다만 군사무기의 발달로 그 화력은 화염방사기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동굴에 숨어있는 탈레반 병사와 주민을 살상하기 위하여 미군은 열압폭탄을 사용합니다. 이 폭탄에는 지중 관통능력이 있어서 동굴 내에서 작렬하여 고온고압의 충격파로 단번에 내부를 폭파합니다. 게다가 충전되어 있는 연료는 알루미늄을 주재료로 사용한 고체연료기화폭약이라고 합니다.

비슷한 발상의 대형연료폭탄으로 GSV(Gelled Slurry Explosive로 질산암모늄과 알루미늄 분말을 젤 형태로 만든 함수폭약)를 연료로 한 데이지 커터(Daisy Cutter), TNT고성능폭약과 알루미늄을 혼합한 분말폭약을 연료로 한 MOAB라는 폭탄이 있습니다. MOAB는 'Mother of All Bombs(모든 폭탄의 어머니)'라는 별칭을 지녔으며 반경 12.4㎞에 영향을 미친다는 핵무기급 위력을 가진 폭탄입니다.[13]

13) 데이지 커터, 열기압(thermobaric) 폭탄, MOAB의 설명은 잡지 『군사연구』(JAPAN밀리터리 리뷰) 2004년 5월호를 참조했다. 또한 MOAB는 'Massive Ordnance Air Blast'(초대형 공중폭발병기)의 약칭이다.

dCollection @ jeju

MOAB는 이라크 침략전쟁 전에 개발되어 실전에서 사용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제가 주목하는 것은 오키나와 전투에서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와의 전쟁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미군의 발상입니다. 알루미늄에서 화력을 강화한 연료로 병사들과 주민들을 한꺼번에 다 태워버린다는 이 발상은 목조민가가 모여 있는 일본의 각 도시를 다 태운 소이탄과 베트콩이 잠복한 베트남의 밀림과 병사, 주민 모두를 함께 싹 태워버린 네이팜탄과도 공통된 것입니다. 거기서 타 죽는 대상은 언제나 아시아 유색인종인 것입니다.

TV에서 아프가니스탄을 폭격하는 미군을 보면서 자신이 겪었던 오키나와 전투체험을 떠올리고 동굴 속에서 죽어 간 사람들을 생각하며 슬퍼하는 감성이나 상상력. 그것은 공격하는 미군의 인종차별도 포함하여 그들의 잔학한 발상을 드러내어 미군의 관점에서 해석된 영상을 비판적으로 재검토하는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키나와와 아프가니스탄을 잇고 있는 것은 동굴에 숨어 있는 주민과 병사, 그를 공격하는 미군의 방법과 발상의 공통성만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오키나와에 거대한 미군기지가 있고 오키나와에 주둔하는 미군이 아시아뿐만 아니라 중동으로도 세력을 넓혀나감으로써 우리들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에 대한 미군의 침략전쟁과 더욱 더 연관되어 있습니다. 오키나와에 미군기지가 있는 한 오키나와에 사는 우리들은 미군이 일으키는 전쟁에 가담하고 있는 셈입니다.

오키나와 전투의 경험을 통하여 현대의 전쟁을 어떻게 해석하며, 현대의 전쟁을 통하여 오키나와 전투를 어떻게 재해석해야 할까요? 오키나와 전투의 결과 미군기지 점거가 계속되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오키나와가 미국 군사전략의 거점(태평양의 요충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키나와 주둔 미군의 활동범위는 '극동'을 훨씬 넘어 중동까지 확대되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도 출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키나와 전투와 미군기지, 그리고 현대전쟁은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문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dCollection @ jeju

제 1부 오키나와 전투와 기지문제를 생각한다

Ⅳ. 기지문제

1959년 6월 30일, 가데나(嘉手納)항공기지를 출발한 전투기가 급식을 준비하고 있던 이시카와시(石川市) 미야모리(宮森)소학교에 추락하여 학생 11명, 일반시민 6명이 사망하고 121명이 부상당하는 대참사가 일어났다.

1965년 6월 11일 요미탄손(読谷村), 연습중인 미군헬기에서 낙하산에 매달린 트레일러가 목표지점을 벗어나 낙하, 초등학교 5학년 다나바라 다카코(棚原隆子) 어린이를 압살했다.

dCollection @ jeju

기지가 없는 마을

오키나와 전투를 통하여 미군기지와 자위대기지 문제를 생각하고, 또 반대로 현재의 기지 문제를 생각하는 과정에서 오키나와 전투를 재해석하는 규명 작업을 학생시절부터 나름대로 해 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오키나와 전투 이야기를 들어왔다고는 해도 처음부터 전쟁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소학교 때는 전쟁을 멋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가족에게 들은 오키나와 전투 이야기도 순간순간 인상 깊게 남았지만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키나와 전투를 본격적으로 연구하게 된 것은 대학에 들어가 오키나와기지의 현실을 직접 확인하면서부터입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나키진촌은 오키나와에서는 드물게 미군기지도 자위대기지도 전혀 없는 마을입니다. 얀바르라고 불리는 북부 순농촌으로 기지가 없기 때문에 평소 미군 병사를 마주하는 일도 없으며, 기지로 인한 피해도 없는 조용한 마을입니다. 반면 기지관련 보조금이 없기 때문에 기지가 있는 지역에 비해 예산면에서는 어려움도 따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자력으로 살아가려는 자세가 생겨난 마을이기도 합니다. 이런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란 입장에서 보았을 때 기지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오키나와 일부 사람들의 주장이 속임수로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유치원에서 소학교 1, 2학년 즈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집 근처 도로를 미군 전차가 줄을 지어 지나갔습니다. 전차의 캐터필러 소리가 들리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 도로로 뛰쳐나와 눈앞을 지나가는 전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라이플총을 들고 녹황색 위장무늬 군복을 입은 미군이 전차 위에 앉아 도로변에 서 있는 우리들을 내려다보고 있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그 때는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석회암을 깔아놓은 도로에 캐터필러 자국이 남았고, 그것을 밟으면 올록볼록 재미있어서 등하굣길에 그 위를 밟으며 걸어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부모님을 따라 중남부에 갔을 때 미군 기지를 본 정도였습니다. 가데나(嘉手納)기지의 울타리 건너편에 B52기의 검은색 꼬리날개가 톱날처럼 늘어서 있는 것을 버스유리창에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키나와의 다른 지역에 비해

dCollection @ jeju

미군과 접촉이 적은 마을에서 자랐기 때문에 기지의 존재를 의식하지 못한 채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 새로운 시각으로 오키나와기지의 현실을 보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미군훈련의 실태를 보다

제가 류큐대학에 입학한 것은 1969년입니다. 입학해서 얼마 안 되어 고속자동차도로 주차장에 미군 연습장에서 날아 온 포탄의 파편이 낙하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1킬로그램이 넘는 금속덩어리로, 사람이 맞으면 죽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학생자치회가 사고를 규탄하는 전단지를 만들어 뿌리자 그것을 읽으면서 서서히 미군기지 문제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미군훈련에 항의하는 집회에도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 해 여름 '요새의 폭풍'이라는 작전명의 상륙훈련이 있다고 하여 현지에서 열리는 훈련저지투쟁에 참가했습니다. 차에서 내려 해안으로 향하자 도로변에 있는 목마황(역주: 木麻黃, 5~10미터 높이의 상록 침엽수로 방풍림에 사용) 숲속에 페이스페인팅을 한 미군 병사가 라이플총을 들고 잠복해 있었습니다. 헤리어 전투기가 머리 위를 어지럽게 날아다니는 가운데 훈련이 시작되고 앞바다에서 접근해 온 상륙용 소형배가 잇달아 바닷가로 상륙하여 병사들이 뛰어나왔습니다. 동시에 모래해변에 설치해 놓은 화약이 작렬하여 모래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발연통에 불이 붙고 기관총과 라이플의 총성이 울려퍼지며 상륙한 부대를 향해 목마황 숲에 잠복해 있던 부대가 요격했습니다. 실전을 방불케하는 훈련을 처음 본 저는 3, 40미터 떨어진 해안의 바윗가에서 항의집회를 하며 대단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키나와의 미군기지는 모두 민간 지역과 인접해 있습니다. 이 훈련도 민간 지역 바로 옆에서 실시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장소에 찾아가 직접 보지 않는 이상 오키나와에 살고 있어도 이러한 연습을 볼 수는 없습니다. 눈앞이 전쟁터로 바뀐 것 같은 훈련을 보고 지금까지 기지의 실태를 나는 너무나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기센바루(喜瀨武原) 실탄훈련이 연간 수회 실시되고 있었는데 이것을 저지하는 투쟁에 처음 참가했을 때의 기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105㎜, 115㎜의 유탄포를 사용하여 온나산(恩納岳)과 부토산 등으로 실탄을 명중시키는 훈련

dCollection @ jeju

이었습니다. 발사지점과 착탄지점 사이에 지방도 104호선이 있었습니다. 훈련할 때에는 이 길이 봉쇄되어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포탄파편이 낙하할 위험도 높았습니다. 그 때문에 현지의 이게이구(伊芸區)와 기센바루구(喜瀬武原區)등에서는 격렬한 저지투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입학하기 약 3년 전까지는 학생들과 노동조합원들이 착탄지인 산속에 들어가 실력을 저지하는 투쟁도 벌이고 있었습니다. 산속에 학생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미군은 훈련을 강행하여 부상자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제가 참가했을 때는 농성과 항의집회, 데모행진뿐이었지만 이것은 오키나와의 반기지투쟁사에 있어서도 커다란 의의가 있는 운동이었습니다.

봉쇄된 지방도 104호선에 이른 아침부터 앉아 있으면 8시가 넘어 유탄포의 발사음이 들리기 시작하고 휘익 소리를 내며 실탄이 머리 위로 날아갑니다. 수 초 후에 착탄지에 흙연기가 올라가고 쾅 하는 소리와 진동이 지면에서 몸속까지 울려퍼집니다. 그때 처음으로 실탄이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체험을 했습니다. 포탄이 공기를 가르고 날아가는 그 소리가 지금도 뚜렷이 귓전에 남아있습니다. 정말로 기분이 으스스해지는 소리입니다.

수십 번이나 반복되는 포탄 소리와 머리 위를 날아가는 실탄 소리를 듣고 있으면 아버지, 어머니의 전쟁체험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함포사격과 공습을 피해 도망다니던 사람들이 느꼈을 공포가 제가 경험한 그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으리라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단지 그렇게 실탄 소리를 듣고 전쟁을 방불케하는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는 훈련을 직접 보았던 것이 오키나와 전투를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키나와 전투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왜 일어났으며 그곳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전쟁으로 말미암아 오키나와가 미군에게 점령되었고 지금도 이렇게 군사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전쟁은 그리고 점령은 끝났다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도 형태를 달리했을 뿐 전쟁도 점령도 지속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내면 깊숙한 곳에서 솟아오르는 이러한 의문을 학생시절부터 품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군기지에는 미군뿐만 아니라 자위대기지도 포함됩니다. 1980년대 들어 오키나와는 니시메 쥰지(西銘順治) 지사의 보수현정(縣政)하에서 자위관

dCollection @ jeju

모집업무를 개시하는 등 자위대 강화가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일본복귀'에서 10년이 지났지만 미군기지와 훈련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자위대까지 이전하여 미일공동훈련이 이루어져서 군사적인 부담과 피해는 더욱 늘었습니다.

거대한 미군기지와 자위대기지가 존재하고 미일군사훈련이 매일같이 실시되고 있는 오키나와의 현실을 직접 확인하고, 항의데모와 현민대회 등에 참가하면서 오키나와 전투 및 기지의 문제를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체험이 『노래』, 『바람소리』, 『평화로라는 이름의 거리를 걸으며』와 같은 소설로 이어집니다.

일상생활 속의 미군기지

항의데모를 하면서 기지와 훈련을 보았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기지가 끼치는 영향을 보아 왔습니다. 대학에 들어가 나하시 슈리에 살다가 캠퍼스 이전으로 기노완시 후텐마(普天間)기지 근처로 옮겼습니다. 그 밖에도 전근으로 나고시의 헤노코(辺野古)나 오키나와시의 가데나기지 게이트 근처에 살면서 기지주변의 환경과 사람들이 생활하는 모습을 나름대로 체험하고 생각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오키나와에 살고 있어도 나하시나 남부 지역에 살고 있으면 평소에는 미군기지를 보는 일도 적고 폭음이나 훈련에 따른 피해를 일상적으로 입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도 오키나와의 TV나 신문에 기지관련 기사가 나오지 않는 날은 없으므로 그것을 보거나 읽는 것으로 기지를 의식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활과 관련이 없으면 무시해 버릴 수도 있겠지요.

다만 기노완이나 헤노코, 고자와 같이 미군기지에 인접한 지역에 살고 있으면 무시하고 지나갈 수는 없게 됩니다. 기지와 생활은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단, 미군기지라고 해도 그 규모나 기능은 매우 다양합니다. 비행장이나 군항이 있는가 하면 병참기지나 통신기지, 주택, 교육시설, 상륙훈련장, 사격훈련장 등 다양한 기지가 있어 기지의 종류와 소속부대의 성격 등에 따라 인접하고 있는 지역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집니다. 그것은 기지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폭음살해나 훈련에 수반되는 사고의 위험성도 장소에 따라 달라지며 주민의 입장도 다양합니다.

따라서 오키나와의 기지 문제를 생각할 때에는 각각의 기지를 조사하는 동시에

dCollection @ jeju

실제로 해당 지역에 찾아가 기지나 훈련, 피해실태 등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한 작업을 바탕으로 자신의 판단이나 태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제가 직접 본 기지마을의 일면을 적어 보겠습니다.

1988년, 단기간이었으나 나고시 헤노코에 있는 중학교에서 보조교사로 근무했었습니다. 헤노코에 아파트를 빌려 생활을 시작하자 이전의 나키진촌이나 나하, 기노완과는 다른 점이 많아 매일 매일이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캠프 슈와브라는 해병대기지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였는데 아침 6시쯤 되면 기지의 소나무숲 건너편에서 조깅하는 병사들의 독특한 리듬의 구령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구령 소리와 함께 하루가 시작되고 학교에 가면 조회를 하고 있는 운동장에 사격훈련 총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총소리는 수업시간에도 계속 들렸고 가끔은 전차가 이동하면서 포격하는 캐터필러 소리나 폭격음도 들려왔습니다. 꽤나 시끄러운 소리였지만 학생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늘 이래요"라고 할 뿐 익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헬리콥터에 대포와 병사 몇 명을 로프에 매달아서 이동하는 훈련이 있었습니다. 아파트 창으로 밖을 내다보고 있는데 바로 눈앞을 헬기에 매달린 미군병사가 가로질러 갔을 때에는 아연실색했습니다. 밤에 길을 걷고 있으면 녹색 코트를 입고 팔뚝에는 붉은 바탕에 하얀색 글자가 새겨진 MP완장을 찬 병사가 순회하고 있습니다. 마주쳐 지나가는 순간 마치 영화 속에라도 들어온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오키나와 내부의 차별과 모순

60년대에서 70년대 사이 그런 풍경은 오키나와에서는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80년대 후반이 되어서도 그러한 상황이 당연한 듯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이상했습니다. 고자의 게이트거리나 파크아베뉴에도 비슷한 풍경이 있지만 헤노코나 긴쵸(金武町)의 해병대기지 주변의 분위기는 그곳과는 다른 독특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술집거리는 이미 황폐해지고 있었고, 미군 병사들은 예전처럼 돈을 쓰지 않는 가운데 훈련은 여전히 실시되고 있습니다. 마침 버블경제가 한창인 시기여서 같은 북부에서도 서해안은 리조트 호텔이 잇달아 세워지고 관광객들이 북적이고 있는데 헤노코나 긴쵸 등의 동해안에서는 시대의 흐름을

dCollection @ jeju

타지 못한 채 60년대의 오키나와가 계속되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우치난츄도 거부감 없이 '얀바르'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북부 지역을 가리키는 '얀바르'는 본래 차별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슈리가 중심인 나하에서 본다면 '얀바르'는 산으로 둘러싸인 미개한 시골로 '얀바라(얀바르 사람)'라는 말에는 모멸적인 여운이 있습니다. 그러한 '얀바르' 중에서도 동해안은 평지가 적고 교통도 불편하여 어려운 생활에 처해 있었습니다. 1970년에 동해안의 구시무라(久村)가 나고쵸(名護町)와 합병하여 나고시가 됩니다. 그 이후에도 서해안에 있는 시가지 나고와 동해안의 구시·헤노코 사이에는 생활과 의식에서 차이가 나타납니다.

이러한 오키나와 내부의 '남북문제'와 '동서문제'라고도 말할 수 있는 이러한 문제를 확실히 인식하지 않으면 왜 1950년대에 헤노코지구가 캠프슈와브기지를 유치한 것인지, 1995년 이후 오키나와 기지문제가 유동화하는 가운데 후텐마기지의 '이전' 예정지로 헤노코가 부상되어 해상기지를 건설하려 하여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할 것입니다.

기지의 희생자

헤노코에서 제가 살던 아파트에는 네 가족이 살고 있었는데 저를 제외한 세 가족은 미군 병사들의 가족이었습니다. 헤노코에는 기지에서 일하는 주민도 많고 음식점을 비롯하여 미군을 상대로 하는 장사나 기지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리(풍어와 바다의 안전을 기원하는 축제)에는 미군 팀도 참가하고 미군 병사와 사귀는 여성도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미군과 공존하고 있는 일상 풍경입니다. 특별히 문제의식을 갖지 않는다면 그것이 당연한 풍경으로 익숙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지와 공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생활의 이면에는 기지에서 파생되는 사건과 사고의 가능성이 항상 존재합니다.

보조교사 근무 마지막 날 있었던 일입니다. 방과 후 책상정리를 하고 있었을 때 교무실에서 교감과 교장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학생 하나가 철조망의 뚫려 있는 구멍으로 미군 훈련장에 들어가 기관총의 표적이 있는 곳에서 총탄을 주워 집으로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그것을 가족이 발견하여 학교로 연락을 해 왔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만일 학생이 기지에

dCollection @ jeju

들어가 있었을 때 사격훈련을 했더라면 커다란 사고로 이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교무실에는 다른 교사들도 몇 명 있었지만 어쨌든 매스컴에 알려져서는 안 된다며 절대로 입 밖에 내지 않도록 교장이 교사들에게 지시하였습니다.

교장과 교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학교 시설도 미군기지 관련 보조금으로 만들어진 것이 있다며 방위시설국과의 관계를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며 너무나 '비정상적'임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상이라면 오히려 언론에 알리고 학생이 쉽게 들어갈 수 있는 훈련장의 위험성을 고발하는 것이 교육자로서 교장이 해야 할 역할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언론에 알려져 문제가 커지면 보조금 지원이 없어질지 모른다는 의식이 그를 얽매고 있었습니다. 곁에서 듣고 있던 다른 교사들 역시 아무도 교장에게 반론하지 않았고 나 역시 묵묵히 학교를 나왔습니다. 보조교사 마지막 날이기에 말참견할 수 없다고 자기합리화하면서.

오키나와 전투와 마찬가지로 기지 피해에 있어서도 지역사회에서 보다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보다 큰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약한 입장에 있는 사람은 위험을 회피하는 힘도 약합니다. 아이들의 위험을 없애는 것은 어른의 의무이며 교사가 맡아야 할 최소한의 역할임에도 나를 포함하여 모두가 그러한 의무와 역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1995년 9월 4일, 오키나와 북부에서 초등학생 소녀가 세 명의 미군병사에게 강간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저는 오키나와시에 있는 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도 충격을 받아 10월 21일에 열린 사건항의 현민집회에는 고등학생들도 대거 참가했습니다. 집회에는 85,000명이 모였는데 이것은 '일본복귀' 이후 최대 규모였습니다.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한 여학생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처 고등학교의 여학생을 미군병사가 덮쳐 임신하게 되었는데 여학생은 중절했고 사실을 숨긴 채 퇴학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들은 북부의 소학교 학생을 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근처 학교에서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은 모르시죠?" 저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여학생은 신호대기를 하며 보도에 서 있는데 바로 앞에 차가 멈추더니 미군 병사가 내려와 자기를 억지로 태우려고 해서 필사적으로 저항했고 다행히도

dCollection @ jeju

무사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납치당했더라면 그 여학생도 무사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키나와에서는 미군기지에 드나드는 여고생들의 문제를 과거 신문에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중학생 때부터 디스코장에 다니며 미군병사와 아는 사이가 되는 여학생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아무런 사건도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성폭력 사건으로 세상에 알려지는 것은 극히 일부입니다. 실제로는 공표되는 숫자의 몇 배나 되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돌려막기식의 오키나와 기지이전

올해는 1995년 소녀강간사건이 발생한지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러나 이 10년간 오키나와 기지의 실태는 거의 바뀌지 않았습니다. 표면상으로는 오키나와의 '부담경감'을 거론하면서도 일본정부는 물론 대다수의 일본인들도 오키나와가 처해 있는 차별적인 상황을 바꾸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세 명의 미군 병사가 소녀에게 가한 폭력에 분노하고 항의하는 목소리는 기지반대라는 커다란 함성을 만들어냈습니다. 오타(大田) 당시 지사의 대리서명 거부와 85,000명이 운집한 현민대회 등을 보고 미일안보체제의 위기를 느낀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가 처한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지반대의 함성을 무너뜨리는 데에 힘을 쏟았습니다.

주된 수단은 기지관련 보조금과 진흥책이었습니다. 시마다(島田)간담회사업(역주: 자립발전의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오키나와 미군기지 소재 지역에 관한 간담회사업』)과 규슈·오키나와 G8정상회담 개최 결정, 2000엔 지폐 발행, 10년간 1,000억엔 규모의 북부 진흥책 등 잇달아 '독이 든 사탕'을 뿌려대어 '기지 문제'를 '경제 문제'로 슬쩍 바꿔치기했습니다. 한편, 후텐마기지의 '반환'을 중심으로 한 SACO(미일특별행동위원회)의 합의를 내놓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명시한 기지의 '정리축소'안은 오키나와현 내에 '대체시설'을 만드는 것으로 기지의 '현내 이전' 계략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초점으로 떠오른 것이 나고시 헤코노 앞바다에 해상기지를 건설하는 문제입니다. 후텐마기지의 '대체시설'로서 '해상 헬리포트'를 건설한다는 새로운 기지문제를 놓고 1997년 12월에 나고시에서 시민투표를 실시합니다. 당시의

Collection @ jeju

히가 데쓰야(比嘉鐵也) 나고시장은 보수가 다수인 의회에 변칙적인 사자택일의 투표방법을 채택하게 합니다. 해상기지건설에 '찬성 / 환경대책과 경제효과가 기대되므로 찬성 / 환경대책과 경제효과가 기대되지 않으므로 반대 / 반대'와 같이 진흥책으로 연결함으로써 유치파에 유리하게 하려는 계략이 뻔히 보였습니다. 투표하기 전 운동에서도 공직선거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을 이용하여 방위시설국 직원이 공무로 찬성표를 호소하는 운동을 벌이고, 시민에게 산양즙을 나눠주는 등의 향응도 공공연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나고시민은 건설반대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찬성과 조건부 찬성을 상회하는 반대표가 나왔던 것입니다. 본래 이것으로 해상기지건설 문제는 종결되야 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히가시장은 투표결과를 뒤집고 건설 수락을 표명한 뒤 사임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후 시민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힘들어 했는지, 시민의 선택을 짓밟아버린 히가시장의 어리석은 행위는 역사에 새겨질 것입니다.

오키나와 기지의 은폐된 진실

이어서 실시된 시장선거에서는 히가씨의 후계자로 지명된 기시모토 다테오(岸本建男)씨가 당선됩니다. 또한 11월 현지사 선거에서는 일본정부가 오타현정(大田縣政)의 재정지원을 동결하는 것과 연동하여 '현정불황'의 대캠페인을 벌이면서, 헤노코기지건설 수락을 거부했기 때문에 불황이 심각해진 것처럼 연출하여 오타지사를 몰아부칩니다. 그 결과 정부와의 '두터운 관계'를 내세운 경제계 출신의 이나미네 게이이치(稻嶺惠一)씨가 당선되었습니다. 처음으로 공명당이 자민당과 연립, 중앙정계의 모델이라고도 불린 '오키나와판 자공연립체제'가 내세운 이나미네 지사와 기시모토 나고시장은 헤노코 해상기지 건설 수락을 표명합니다.

오키나와의 반발을 누르고 기지를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 정부에서 공약으로 내놓은 재정보조와 진흥책은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습니다. 이것으로 마치 오키나와가 돈과 바꿔 기지를 받아들였으니 더 이상 '오키나와에 기지를 떠넘기고 있다'라는 부담감을 느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기지문제에 대한 '본토' 사람들의 관심이 옅어짐과 동시에 '휴양의 섬'으로 오키나와가 인기를 얻으면서 오키나와의 음악과 예능, 요리 등이 붐을 일으키게 됩니다.

오키나와 내부에서도 류큐대학의 다카라 쿠라요시(高良倉吉), 오시로 쓰네오

dCollection @ jeju

(大城常夫), 마에시로 모리사다(眞榮城守定) 세 명의 학자가 안보조약을 인정하고 기지가 해야 할 역할을 주체적으로 맡자는 주장의 '오키나와 이니시어티브'를 선언합니다. 오키나와에서는 그 주장이 비판의 폭풍을 맞게 되지만 오키나와에 기지를 집중배치하고 싶은 일본정부나 '본토'의 보수세력은 오키나와 내부에서 나온 기지 건설을 긍정하는 메시지로서 환영할 일이었습니다.

이나미네 지사의 브레인이라고도 불린 그들은 미군기지의 경제적 활용도 강조합니다. 기지에서 파생되는 사건이나 사고, 현민의 피해라는 현실에서 시선을 돌려 기지가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고 오키나와 내외에서 선전함으로써 오키나와와 기지로 상징되는 '정치적 오키나와'에서 IT(정보기술)나 금융 등의 새로운 산업으로 상징되는 '경제적 오키나와' 또는 독자적인 문화와 예술, 자연을 지닌 '휴양의 섬 오키나와'로 전환을 시도합니다.

궁지에 몰린 기지 문제

일본정부와 '본토'의 보수세력, 이나미네 현정과 오키나와 보수세력의 일련의 목표는 성공했던 것일까요? 어느 정도는 성공했을지도 모릅니다. 최근 10년 동안 오키나와 현내의 수장선거와 의회선거에서 자공연립 보수진영이 세력을 확대했습니다. 오키나와의 이미지를 전환하여 근본적으로 미미했던 오키나와의 기지 문제에 대한 '본토' 언론이나 일본인 대다수의 관심을 더욱 약화시키는데에도 한몫 했지요. 기노완시 오키나와국제대학에 미군헬기가 추락해도 '본토' 언론의 대다수는 프로야구 자이언트팀의 와타나베(渡邊) 회장의 사임보다도 작게 다루었으니까요. 이것이 지금의 관심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기지 문제는 추진되고 있는 것일까요? 헤노코 해상기지 건설은 정부 내부에서도 '더 이상은 무리'라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정체상태에 빠졌습니다. 규슈·오키나와 G8정상회담을 기대하는 분위기로 들뜬 가운데 반대파인 나고시장 주민소환운동이 정체되거나 좌절된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헤노코 주민을 중심으로 반대운동은 끈질기게 이어져, 작년 4월에 시추조사가 개시된 후에도 농성과 해상저지데모가 일어나 조사를 저지했습니다. 오키나와현 내의 여론조사에서도 80%이상이 헤노코기지 건설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듀공(역주: 듀공과의 바다 포유동물)을 비롯한 해양생물과 자연환경 보호를 요구하는 운동은 세계로

dCollection @ jeju

확산되고 있습니다.

SACO에서 명시한 기지'이전' 중에서 후텐마기지와 맞먹는 중요한 항목인 나하군항(那覇軍港)의 우라소에(浦添)시 '이전'은 미해결 상태로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긴쵸의 캠프한센 기지 내에 도시형 전투훈련시설이 건설되는 등 '정리축소'나 '부담경감'은 말뿐으로 오키나와기지는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8월 13일에는 오키나와 국제대학에서 헬기 추락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제적 오키나와'나 '휴양의 섬 오키나와'를 아무리 연출하려해도 '기지의 섬 오키나와'라는 현실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렇게 드러난 오키나와의 현실에 대해,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오키나와에서 모든 일본인들을 향하여 던져졌습니다. '오키나와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본토'에 사는 일본인입니다. 오키나와를 '희생양'으로 삼는 것으로 '본토결전'을 회피하고, 오키나와를 미국에 팔아넘기는 것으로 전후의 경제성장을 실현했습니다. 그리고 '전후 60'년이 지난 지금도 오키나와에 군사기지를 집중적으로 배치하여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미일안보체제의 부담을 느끼는 일 없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잔인함을 일본인은 자각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을 위해 오키나와가 희생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돈 때문에 오키나와현민은 기지를 받아들이지 않았지 않느냐?' 이처럼 차별의식을 그대로 드러내는 본심을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이 입에 담는 야마토인이 최근 늘고 있습니다. 한편 '휴양의 섬'을 동경하여 이주해 온 야마토인도 많습니다. 일본인의 눈에는 오키나와인은 그저 사람 좋고 조용하게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리 쉽게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야마토의 형편에 맞춰 농락당했어도 언제까지나 오키나와인이 조용하게 순종할 리는 없습니다. 자신을 짓밟는 발을 '치우라'고 해도 치우지 않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요? 마지막에는 찌를 수밖에 없는 것인가요? 고자폭동의 기록영상에 나오는 한 청년의 울부짖음, '오키나와인은 인간이 아닌가!'라고 분노하는 목소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가 최근 자주 떠올라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오키나와가 주체적으로 살아가려면

현재 미군의 세계적인 재편에 발맞춰 주일미군의 재편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dCollection @ jeju

이것을 '천재일우'의 호기로 여기고 '오키나와 해병대의 해외이전을'이라는 주장을 보수파인 이나미네 지사조차도 입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헤노코의 해상기지 건설은 계속 추진한다는 모순에는 모르는 체 하고 있는데, 작년 8월에 오키나와국제대학에서 일어난 미군헬기추락사건 이후 미군에 대한 오키나와현민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이나미네 지사도 이 모순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키나와현 당국과 일본 정부와의 인식의 차이나 대립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의 변화를 일본인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일본 정부는 미군의 이전지를 국내에서 찾는 것은 지역의 반발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오키나와에 기지를 집중 배치하고 싶다는 본심을 전혀 바꾸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군재편에 연동하여 오키나와의 자위대를 강화하려는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에 명시된 '방위력에 관한 검토회의'(의장 이시바 시게루(石破茂)방위청장관·당시)의 최종보고에서는 오키나와에 배치되어 있는 육상자위대 제1혼성단에 약 850명의 보통과연대를 신설하여 2,300명 규모의 여단으로 증강할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그 방침에는 미야코섬(宮古島)에 육상자위대를 배치하고 항공자위대 나하기지의 F4전투기를 기동력이 높은 F15기로 변경하는 것과 미야코의 시모지섬(下地島) 공항에 전투기를 이주한다는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보고를 근거로 12월에는 2005년도 이후의 '방위계획 대강'을 내놓았습니다.

일본정부와 방위청은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의 '대 테러전쟁'을 대응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자위대를 미군의 지휘하에서 활동하게 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키나와는 일본 남서영토의 방위를 최전선에서 맡게 되고 새로운 군사적 긴장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일본정부와 방위청이 '도서방위'를 내세워 '국민보호'를 강조해 봐도 좁은 섬 안에서 도망칠 곳이 없다는 것은 오키나와인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군대가 있는 곳이야말로 공격을 받는 곳이며 막상 전쟁이 터지면 군대는 주민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오키나와 전투가 실제로 증명하였습니다. 오키나와 전투의 경험을 우리들은 잊지 않고 있으며 오키나와의 자위대 강화에 대해서는 강한 반대운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키나와를 남서 지역의 군사거점으로서 강화하려는 일본 정부의 움직임을 볼 때 다시 오키나와를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dCollection @ jeju

아마 일본에는 지금도 최종적으로 지켜야 할 '절대국방권(역주: 캐롤라인 제도와 마리아나 제도, 오가사와라 제도를 묶는 방어선으로 전쟁을 지속하기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라인)'이 있으며 오키나와는 그 안에 들어있지 않을 것입니다. 오키나와인은 지금이야말로 오키나와 전투의 교훈을 마음속에 새겨야 할 때입니다. 더욱 훌륭한 '일본인'이 되려고 발버둥치며 스스로 죽음으로 뛰어들었던 60년 전의 잘못을 두 번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과 중국에서 일어났던 '반일'데모를 마치 자신들이 피해자인 것처럼 보도하는 일본의 언론을 보고 있자면 짓밟히고 있는 자의 아픔을 일본인은 알고나 있는지 참으로 의심스럽습니다. 자신들이 일으킨 무겁고 괴로운 가해의 역사를 외면하고 자신들이 짓밟고 있는 자들의 비명소리에 귀를 기울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키나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와 같은 일본인의 근성이 바뀌지 않는 한 한국이나 일본, 기타 아시아 여러 나라 그리고 오키나와에서조차 일본인은 외면당하겠지요. 오키나와에서는 최근 '필요 없는 일본인', '방해되는 일본인'이란 말이 나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오키나와에 기지를 떠넘김으로써 나타나는 차별을 자각하지 못한 채 오키나와를 소비하고 먹어치우려고 하는 일본인을 따끔하게 충고하는 표현일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오키나와의 아픔도 느끼지 못하는 일본인은 아시아에서 더욱 고립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유일하게 의지하고 있던 미국에게도 버림받을지 모릅니다.

이러한 일본의 꼬리에 붙어있는 것이 오키나와에게 과연 좋은 선택일까요? 중국, 일본, 미국의 3대 강국 사이에서 살아나가야 하는 것은 오키나와의 숙명입니다. 그 틈새에서 오키나와인이 얼마나 주체적으로 살아나갈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앞으로 중국이 정치, 경제면에서 동아시아에서 주도권을 잡아나갈 때 오키나와 주변의 정치 정세도 변화할 것입니다. 일본이 중국보다도 정치, 경제면에서 앞선 최근의 백 년 가까이 되는 역사는 오백 년 천년 단위로 본다면 오히려 예외적인 것이며, 동아시아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조공체제 아래에 있었던 것이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지금 동아시아의 예외적인 시대가 끝나려고 하는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커다란 변화 속에서 오키나와인은 앞으로 어떠한 길을 선택하여 살아가야 할까요?

dCollection @ jeju

‘류큐처분’에서 오키나와 전투, 시정권 반환을 거쳐 오늘에 이르는 오키나와의 역사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요?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고 오키나와인이 동아시아에서 주체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것이 지금 제게는 무엇보다도 절실한 문제입니다.

JEJU NATIONAL UNIVERSITY 1952
JEJU 1952
제주대학교

dCollection @ jeju

일본어초록

著者は戦後60年になる節目の年に、「戦後60年」とほとんど自動的に言えてしまうことに疑問を呈する。疑問の一つ目は「戦後＝第2次世界大戦後」でない国、二つ目は日本の自衛隊の派兵や米軍基地での戦闘機出撃、沖縄住民の兵站活動、三つ目は憲法9条の解釈、四つ目は日本本土と沖縄との戦後60年の違いである。したがって、ここでは「戦後60年」の「戦後」と戦争が終わった後という意味での「戦後」は区別して受け止めることを前提とする。

1960年生まれの著者は、自ら戦争を体験した世代ではないが、家族や周りから聞いた生きた歴史を共有し、「戦後ゼロ年」の沖縄を救うため努力し続ける。結局沖縄戦は、本土決戦の時間を稼ぐため、沖縄を「捨て石」にした一つの作戦にすぎなかったことがわかる。長く続けられた同和教育は、差別と脅迫の連続であり、沖縄戦はその終着点と言える。

では、沖縄人の不幸な歴史をどれだけの日本人が知っているのか。最近の「沖縄ブーム」は、都合の悪い沖縄の歴史や現実から目を背けるために利用されているだけである。沖縄は日本とアジア諸国との間で被差別と差別、被害と加害の二重性を負っている。著者は、その二重性の実体を検証し、その意味を考え、沖縄独自の戦争への認識と反省の在り方を示すことが重要だとする。

著者が小説を書くのは、大掛かりな大河小説や美談に仕立て上げられた映画を創ることではない。戦争の渦中で沖縄人がどう生き、どう死んだのかを繰り返し語る。悲惨な戦争は、今もアフガニスタンやイラクにおいて同じ発想で再現されている。沖縄戦の経験を通して、現代の戦争をどうとらえていくか、同時に、現代の戦争を通して、沖縄戦をどうとらえ直すのかを問う。

最後に彼は、基地が平和を守るという発想がどれほど愚かで危険なものかを訴える。財政補助や振興策の一環として「基地問題」を「経済問題」に置き換え、住民の視線をそらす政府を強く批判する。また、揺らぐ沖縄人のアイデンティティをも懸念する。「琉球処分」から沖縄戦、施政権返還を経て今日に至る沖縄の歴史から私たちは何を学ぶのか。過去の過ちを繰り返さず、沖縄人が主体的に生きていくためにどうすればいいのかを苦慮しながら締めくくる。

dCollection @ jeju